

文學碩士 學位論文

朝鮮後期 業鏡臺 研究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化財學科

吳 知 珉

2015年 12月

朝鮮後期 業鏡臺 研究

지도교수 임영애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5년 12월

경주대학교 대학원

문화재학과

오지민

吳 知 珉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양 희 제 印

審査委員 오 세 덕 印

審査委員 임 영 애 印

慶州大學校 大學院

2015年 12月

朝鮮後期 業鏡臺 研究

吳 知 珉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化財學科

指導教授 林 玲 愛

(국문초록)

업경대는 업경 혹은 업경륜 이라고도 한다. 불교에서 지옥의 염라대왕이 가지고 있다는 인간의 죄를 비추어보는 거울이다. 사람이 죽어 지옥에 이르면 염라대왕은 업경대 앞에 죄인을 세우고 생전에 지은 죄를 털어놓도록 한다. 거울 앞에서 있으면 살아생전 저지른 모두 죄과가 보인다. 이런 이유로 시왕전이나 명부전 안에 업경대를 만들어 두어 죄과를 살피는데 사용한다.

업경은 경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염라대왕을 비롯한 시왕의 명칭이나 지옥에서의 심판광경 등도 함께 볼 수 있다. 염라대왕도에는 반드시 업경대가 나타나는데 업경대 안에는 보통 긴 몽둥이를 들고 소를 때려 죽이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이것은 생전에 가축을 도살한 사람의 죄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246년 해인사소장인 작품 『예수시왕생칠경』 변상판화(제5염라대왕도)에 업경대가 확인되고 있어, 고려시대에 이미 업경대가 널리 알려지고 있음을 살필 수가 있다.

업경대는 나무로 제작되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작연대가 확인되는 작품으로 17세기에 조상된 1627년 전등사 목조 업경대 한 쌍, 1688년 표충사 목조업경대 한 기, 1693년 청곡사 목조업경대 한 쌍, 세 사찰의 작품이 업경대의 典型이 되는 중요한 작품이다. 18세기에는 1728년 동화사소장 1기, 19세기에 1862년 파계사소장 한 쌍이 있다.

불화 시왕도에서 나타나는 업경대는 18세기부터 업경대를 볼 수 있으며 1742

년 해인사소장 명부전시왕도를 시작하여 총 9점이 확인되며, 19세기 작품 또한 1855년 화방사소장 명부전시왕도를 포함하여 총 7점이다.

조선후기 업경대는 목조로 조각되어 실물로 존재하는 것과 불화 속에 표현된 업경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업경대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7세기 업경대는 실물로만 남아있고, 불화에는 그려진 예가 없다. 한 쌍의 사자대좌이며, 황색과 청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18세기 업경대 역시 실물의 경우 쌍으로 제작되었으며, 17세기와 큰 차이없이 전개되었다. 반면 18세기 불화의 업경대는 실물과 달라 쌍이 아닌 1기만 표현되어 있으며, 그 경우 황색 사자만을 그려넣고 있다. 1기만 그려넣을 경우 청색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색이었던 황색을 선택하였던 것으로 생각한다. 18세기 후반이 되면 그림 속 업경대에도 변화가 생기는데, 즉 황색사자가 사라지고 기둥형 대좌의 업경대가 등장한다. 흥미롭게도 실물 업경대 역시 그림 속 업경대와 마찬가지로 기둥형 업경대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이전의 사자대좌 업경대의 전통이 사라지지는 않고 여전히 제작된다. 19세기는 18세기 그림 속 업경대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기둥형 업경대가 실물로도 제작되기 시작한다. 이후 19세기의 업경대는 실물로도, 혹은 그림으로도 기둥형 업경대가 주류를 이룬다. 19세기 후반이 되면 수은 거울, 즉 洋鏡의 보편화와 함께 양경의 모습을 타원형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추정한다. 둘째, 실물 업경대와 그림 속 업경대의 비교 분석이다. 실물 업경대와 그림 속 업경대의 가장 큰 차이는 실물은 기본적으로 쌍으로 제작하였으며, 그림 속 업경대는 1기만 그려넣고 있다는 점이다. 실물 업경대의 경우 지장전 또는 명부전에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좌우에 각각 1기씩 봉안하는데, 왼쪽에는 보다 중요한 황색 사자대좌의 업경대를, 오른쪽에는 청색 사자대좌의 업경대를 배치하며, 거울 혹은 구슬 안에 소를 도살하는 장면이 공통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는 당시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동물인 소를 죽이는 죄과가 가장 컸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실물 업경대는 실제로 ‘업경’이지만, 그림속 업경대의 경우는 ‘업경’ 즉 거울이라기 보다는 ‘火珠’일 가능성도 제시하였다.

업경대는 인간의 본질 자성인 개아, 자아가 깊숙이 잠들어 있는 본성광명에 충격을 줌으로써 그의 생애 필름을 눈앞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마음 속에 성령의 빛이 밝게 비취 자신의 전생애를 돌아보게 하며 진실한 생각을 하게 하므로써 자기 행위를 돌이켜 반성하고 뉘우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제어: 업경대(業鏡臺), 대좌(臺座), 목조(木造), 시왕도(十王圖), 염라대왕(閻羅大王), 지장전(地藏殿), 명부전(冥府殿)

목 차

I. 머리말	1
II. 업경대의 발생과 전개	3
1. 경전에 나타난 업경대	4
2. 지장신앙과 업경대	7
III. 조선후기 업경대의 현황	12
1. 17세기 업경대	17
(1) 목조	17
2. 18세기 업경대	24
(1) 목조	24
(2) 시왕도의 업경대	26
3. 19세기 업경대	38
(1) 목조	38
(2) 시왕도의 업경대	39
IV. 조선후기 업경대의 특징	47
V. 맺음말	54
참고문헌	56
표 목록	60
도판목록	60
ABSTRACT	63

I. 머리말

조선후기는 조선전기부터 억압받았던 불교계가 다시 부흥하는 시기이다. 특히 전국사찰에서 현재까지 전해지는 다양한 종류의 불교 목공예품은 대부분 조선후기에 제작된 것들이 많다.

불교목공예는 조선시대의 목조공예품이라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18세기 이후의 것이어서 시대 변화에 따른 목공예의 조형성을 살펴보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조선시대 후기를 중심으로 현재 사찰에 남아있는 장엄목공예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불교목공예가 다양한 형태로 발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불교목공예는 불교의 시원과 불교미술의 발생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지녔다고 생각되지만,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업경대는 나무로 제작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재질의 특성상 화재에 약하고, 뒤틀림 등에 의해 오랜 기간 보존이 어렵기 때문에 현존하고 있는 유물이 대부분 조선후기에 제작된 것들이다.

불교목공예란 장엄목공예를 말하는데 이는 ‘목공예로써 사찰을 장엄하게 꾸민다’는 뜻이다. 장엄이라 함은 배치, 배열을 잘한다는 뜻과 함께 엄숙하게 장식된 것을 말하며 또한 덕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사찰을 장엄한다는 것은 곧 불심에서 우러나 불심을 일으키게 하는 분위기를 갖추고 불교적인 정식세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불교공예품 가운데 업경대는 대부분 사찰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불교의 식구 중 하나였으며, 시대에 따라 변화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업경대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1990년에 박찬수가 쓴 『불교목공예』에 조선후기의 업경대가 간단히 소개되었다.¹⁾ 이후 업경대에 대한 논문으로 윤열수의 「전등사소장 천계 칠년명 목각업경대」²⁾와 김순아, 「불교법구 業鏡臺 고찰」이 있다.³⁾ 그러나 논문에 소개된 사례가 현존

1) 박찬수, 『불교목공예』, 대원사, 1990, p. 74.

2) 윤열수, 「전등사소장 천계 칠년명 목각업경대」, 『동악미술사학』 3, (동악미술사학회, 2002), pp. 345-357.

3) 김순아, 「불교법구 業鏡臺 고찰」, 『불교미술』 25, 2014, pp. 74-95.

하는 작품을 모두 다루고 있지 않으며, 17세기의 대표작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과는 차이가 있다.

이후 업경대에 대해서는 불교 의식구 관련 논문이나 단행본에서 부분적인 언급이 되기는 하였지만, 단독 주제로는 연구된 바 없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업경대는 실물로서 뿐만 아니라 불화에서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당시 불교의식이나 불교공예품의 하나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현존하는 업경대를 시대별로 편년체계를 세우고, 시기별 변화양상을 살펴서 업경대의 용도와 가치를 재검토 하고자 한다. 우선 II 장에는 경전에 나타나는 업경대와 지장신앙과의 업경대 발생과 전개를 살펴보고, 이어 III장에서는 제작연대를 알 수 있는 업경대 중심으로 불화와 공예를 비교분석하고, 업경대의 형태별 변화양상을 나누어 조선후기 업경대의 시기별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조선후기의 업경대 의미와 특징을 정리하려고 한다.

II. 업경대의 발생과 전개

업경대는 불교에서 지옥의 염라대왕(閻羅大王)이 가지고 있다는 인간의 죄를 비추어보는 거울이다. ‘업경’ 혹은 ‘업경륜(業鏡輪)’이라고도 한다.⁴⁾ 불교에서 지옥은 염라대왕이 다스리는 곳이며六道 중 가장 고통이 심한 곳으로, 즉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다. 사람이 죽어 지옥에 이르면 염라대왕은 업경대 앞에 죄인을 세우고 생전에 지은 죄를 모두 털어놓도록 한다. 불교에서 이야기되는 지옥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경전마다 지옥의 수나 종류, 위치, 크기 등에 대한 내용이 조금씩 다를 뿐만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는 원인이나 또 지옥에서 죄인이 받고 있는 고통스런 모습도 한결같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중생들로 하여금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무섭고 또 무거운가를 일깨워 나쁜 짓을 그치고 착한 일을 널리 행하도록 하기 위한 데에 그 참뜻이 있다.⁵⁾

염라대왕은 명부(冥府)의 시왕 중 다섯 번째 왕이다.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을 명부라 하는데, 명부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이 지장보살과 시왕이다. 염라대왕은 명부에서 죽은 자가 다섯 번째 맞이하는 칠일(七日)간의 일을 관장하는 관리이다. 야마(夜摩), 염마(閻魔) 등으로도 불리며, 원래 인도에서는 천상의 교주였다고 하나 지옥신앙이 발달하면서 지하 지옥의 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⁶⁾ 이것이 후일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염라대왕으로 신격화된다. 여기서도 염라대왕은 망자에 대한 고과를 매긴다. 염라청에 다다르면 누구나 업경대(業鏡臺)⁷⁾에 서야한다.

4) 『사분율행사초자지기四分律行事抄資持記』

5) 이기선, 『지옥도』, 대원사, 1992, p. 29.

6) 『직지성보박물관의 유물』, 직지성보박물관, 2003. p. 204.

7) 홍윤식, 「조선 사원전래의 불화내용과 그 성격 - 조사방법중심으로-」, 『문화재』 10, 문화재관리국, 1976, pp. 83-105 ; 김정희, 「조선시대지장시왕도연구」, 일지사, 1996, pp. 46-55 ; 유마리.김승희, 『불교회화』, 솔출판사, 2004, pp. 253-259.

업경대에는 그가 생전에 지은 선악의 행적이 그대로 나타나며, 거울 앞에 서있으면 살아생전 저지른 모든 죄과가 보인다. 그래서 지금도 시왕전(十王殿)이나 명부전(冥府殿) 안에 업경대를 만들어 두어 죄과를 살피는데 사용한다. 사찰의 명부전을 들여다보면, 지장삼존(지장보살과 무독귀왕(無毒鬼王⁸)과 도명존자(道明尊者⁹))을 중심으로 좌우에 시왕이 늘어서는 명부세계의 체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신앙을 중심으로 산 사람을 위한 ‘예수재(豫修齋)’와 죽은 사람을 위한 49제가 성행하여 현재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1. 경전에 나타난 업경대

우리나라의 시왕도는 『불설예수시왕생칠경(佛說預修十王生七經)』에 의거하고 있다. 인간은 죽은 후 시간에 따라 차례로 시왕을 만나게 되는데 7일 간격으로 초칠일(初七日)에는 진광대왕(秦廣大王), 이칠일(二七日)에는 초강대왕(初江大王), 삼칠일(三七日)에는 송제대왕(宋帝大王), 사칠일(四七日)에는 오관대왕(五官大王), 오칠일(五七日)에는 염라대왕(閻羅大王), 육칠일(六七日)에는 변성대왕(變成大王), 칠칠일(七七日)에는 태산대왕(泰山大王), 백일(百日)에는 평등대왕(平等大王), 1주기(一週期)에는 도

8) 지장보살의 오른쪽에 표현되는 무독귀왕은 도명존자와 함께 지장보살의 가장 대표적인 협시이다. 귀왕이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문관 또는 왕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이 상례인데, 대개 원유관(遠遊冠)을 쓰고 홀 또는 경괘(經櫃)를 들고 있거나 합장한 모습으로 표현된다. 김정희, 『조선시대 지장시왕도 연구』, 일지사, 1996, p. 177.

9) 지장보살의 왼쪽에 협시하고 있는 상으로서 젊은 수도승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합장을 하거나 지장보살 대신에 석장을 들기도 한다. 명부신앙과 관련있는 도명존자는 돈황에서 발견된 문서(S.3092號)에서 인용한 「환혼기(還魂記)」에 등장하는 양주 개원사의 도명화상이다. 이 기록에 의하면 도명화상은 778년 지옥사자에 의해 지옥에 가서 그곳에서 지장보살을 친견한 후 다시 이세상으로 돌아와 자신이 명부에서 본 바를 세상에 알리고 그림으로 그렸다고 하는데, 이러한 연유에서 그후 도명존자는 지장보살과 관련되는 곳에는 빠짐없이 주요 협시로 등장하고 있다. 김정희, 앞 책, pp. 174-175.

시대왕(都市大王), 마지막 3주기(三週期)에는 오도전륜대왕(五道轉輪大王) 등을 만나 생전에 지은 죄업에 따라 받는 형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업경은 경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염라대왕을 비롯한 시왕의 명칭이나 지옥에서의 심판광경 등도 함께 볼 수 있다. 염라대왕도에는 옥줄이 죄인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은 채 업경대를 들여다보는 장면, 방아로 죄인을 찧는 장면, 판관이 두루마리에 죄상을 적는 장면 등이 나온다. 염라대왕도에는 업경대가 반드시 나타나는데 업경대 안에는 보통 긴 몽둥이를 들고 소를 때려 죽이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이것은 생전에 가축을 도살한 사람의 죄를 보여주는 것이다.

『시왕생칠경』에서는,

오칠 일째에는 염라대왕을 지나는데, 찬하기를

‘오칠일에 염라대왕 앞에서는 죄인의 간하는 소리 멈추니

죄인들은 한탄하며 정을 달갑게 여기지 않네.

머리칼을 잡힌 채 머리를 들어 업경을 보니

비로소 전생의 일을 분명히 깨닫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업경이 있어 죄인들의 생전의 죄를 비추어 그에 따라 벌을 준다’ 고 한다.¹⁰⁾

『예수시왕생칠경(預修十王生七經)』에 설하기를 “재행계행 더럽혀 닭과 돼지를 죽인다면 업경대는 분명하여 그 죄상을 못 피해도 시왕경과 존상을 봉인하여 지극 정성으로 참회하면 염라대왕이 판단하여 그 죄악을 사면한다” 고 하였다. 염라대왕의 판단과 믿음의 정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다. 제 5염라대왕의 찬문에 “머리채를 잡힌채 머리를 들어 업경을 보

10) 第五七日過閻羅王 讚曰。五七閻王息諍聲 罪人心恨未甘情 策髮仰頭看業鏡 始知先世事分明 불설예수시왕생칠경 x 01 0021[0409c02]

니”라는 내용이 있어, 시왕신앙의 수용은 업경대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는 계기로 생각할 수 있겠다.

『능엄경(楞嚴經)』에는 “악이 나타나는 업경과 화주(火珠)가 있어 지은 죄를 드러내고 모든일을 비추어 본다”라는 구절이 있는데,¹¹⁾ 명계에 간 중생이 육도로 갈 방향은 업경대에 비취지는 선행에 지은 선악에 의해 결정되며 그 죄의 무게에 따라 중생에게 내려질 벌이 가감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정법엄처경(正法念處經)』에 업의 거울에 들어가 그 업의 과보를 본 사람은 모두 유희하지 않고, 마치 아라한처럼 할 일을 마치고 방일한 행을 떠나 편안히 머물렀다.¹²⁾ 라거나,

『사분율행사초자지기(四分律行事抄資持記)』의 권하에는 “1년에 3회, 정월과 5월, 9월에 冥界的 업경륜이 남섬부주(불교의 세계에서 인간들이 살고 있는 곳을 이름)를 비추는데, 선악업이 있으면 그 곳에 모두 나타난다고 기록하고 있다.¹³⁾

또한 『지장보살심인연시왕경(地藏菩薩心因緣十王經)』에도 ‘사방팔방에 업경을 달아두고 있으며 전생에 지은 선과 복, 악업을 마치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이 볼 수 있다’고 하였다.¹⁴⁾

이와 같은 경전의 내용에 따라 시왕을 봉안하는 지장전이나 명부전에 업경대를 설치하는 사찰이 많다.¹⁵⁾ 현재 널리 알려진 시왕경전은 『불설예수시왕생칠경』과 『지장보살심인연시왕경』이 대표적인데 중국과 한국에서는 『예수시왕생칠경』이 일본에서는 『지장보살심인연시왕경』이 시

11) 鑑見、照燭。如於日中不能藏影。故有 惡友、業鏡、火珠、披露宿業、對驗諸事。(T.0945)

12) 『한글대장경』 제 31 권 6. 관친품 ⑩ 2) 삼십삼천 ⑦

13) 年三者正五九月。冥界業鏡輪照南洲。若有善惡鏡中悉現(或云天王巡狩四天下此三月對南洲又云此三月惡鬼得勢之時故令修善)。x 下(2)

14) 第五閻魔王國(地藏菩薩)[0405a24] x 01 0020 八方每方懸業鏡一切衆生共業增上鏡

15) 동국불교미술인회, 『사찰에서 만나는 불교미술』, 대한불교진흥원, 2005, p. 130.

왕신앙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불설예수시왕생칠경』 내용은 일체중생은 사후 현세의 죄업에 따라 명부시왕의 재판에 의해 죄과를 받지 않으면 안되는데, 생전에 재공예배를 미리 닦아야 함을 역설하여, 석가모니가 염라대왕에게 다음 생에 예언하는 부분과 공덕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찰 명부전에 진설되는 업경대는 불가의 엄격한 수계생활을 일깨우는 장엄구이자 권선징악의 상징물이다.¹⁶⁾

2. 지장신앙과 업경대

불교의 지옥관(地獄觀)이 다른 지옥 사상과 크게 다른 점은 지장신앙에서 엿볼 수 있듯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자비심이 바탕을 이루고 있는 점이다. 이 점에서 볼 때 불교의 지옥세계에서 으뜸가는 존재는 지장보살이다.¹⁷⁾ 우리의 사후관인 극락과 지옥, 중 지옥세계를 담당하는 지장신앙과 시왕신앙의 전통은 한국에서 유행한 지장신앙의 3대경전인 『대승대집장십륜경(大乘大集地藏十輪經)』 (약칭 『지장십륜경』), 『점찰선악업보경(占察善惡業報經)』 (약칭 『점찰경』)¹⁸⁾,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전생의 선업과 악업을 점쳐, 그 깊은 업장을 씻고 청정함을 얻기 위해 지장보살

16) 홍대한, 「마음을 비추는 거울-업경」, 『월간불광』, 359, 불광출판사, 2005.

17) 이기선, 앞 책, p. 49.

18) 점찰법이란 목륜(木輪)을 던져서 과거세상에서 지은 선악의 업보 및 현재사상에서의 고락, 길흉 등을 점치는 것이다. 만약 점을 친 결과 악업(惡業)이나 고과(苦果), 흉사(凶事) 등이 나타난 사람은 장애가 많아 선정(禪定)과 지혜를 닦으려 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장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지장보살을 예참케 함으로써 그 참회에 의해 업장을 소멸하고 계근(戒根)을 청정히 한 뒤 대승의 보살계를 받고 다시 선정과 지혜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점찰경』의 핵심 내용이다. 김정희, 앞 책, p. 64.

을 염불하며 천 일간 참회의 수행 정진을 골자로 하는 ‘점찰법회(占察法會)’는 신라시대 원광법사의 행적에서부터 확인된다.

...점찰보(占察寶)를 두어 항규(恒規)를 삼았다. 때에 시주(施主)하는 중이 있어 점찰보에 납전(納田)하였으니...¹⁹⁾라든지, 점찰선악업보경2권(占察善惡業報經二卷)을 전교(傳敎)하여 이르되 『너는 이 계법(戒法)을 가지고 미륵(彌勒).地藏』 양성(兩聖) 앞에 가서 간구(懇求)하고 참회(懺悔)하여 친히 계법(戒法)을 받아 세상에 유전(流傳)하라』 하였다.²⁰⁾ ‘...점찰회를 하는 것으로 항규를 삼았다.’²¹⁾ ‘...점찰경 상권에 의하면 189간자(一百八十九簡子)의 명(名)을 말하였으되—(1)은 상승(上乘)을 구(求)하는 바 과(果)를 나타내어 증(證)할 것.²²⁾ ‘...점찰법회를 베풀어 항규를 삼으라 하였다.’²³⁾ ‘...점찰경 두 권 과 증과간자(證果簡子) 189개(一百八十九介)를 주고 이르기를...’²⁴⁾

현세 이익과 망자의 천도를 위해 행해진 이 점찰법회는 그 기록이 『삼국유사』 곳곳에서 확인되어 신라시대 당시 상당히 성행했던 법회 중 하나로 추정된다.

‘전생의 업’이란 마치 기독교의 ‘인간의 원죄’와도 같은 종교적 기능을 하여, 그 참회의식과 수행을 통해 일종의 마음의 정화를 얻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고려시대에 서민에까지 널리 유행했던 ‘십재일(十齋日)’ 역시 『지장본원경』에 그 연원을 두며, 경전에 명기된 10일간만이라도 경전을 독송하고 계를 지키면 현세의 모든 업장을 면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각각의 10일에 시왕과 원불(願佛)의 명칭 그리고 이들에게 각각 재(齋)를

19) 『삼국유사』 권 제4 의해 제5 원광서학(圓光西學).

20) 『삼국유사』 권 제4 의해 제5 관동풍악발연수석기(關東楓岳鉢淵戴石記).

21) 『삼국유사』 권 제4 의해 제5 사복불언(蛇福不言).

22) 『삼국유사』 권 제4 의해 제5 심지계조(心地繼祖).

23) 『삼국유사』 권 제5 감통 제7 선도성모수희불사(仙桃聖母隨喜佛事).

24) 『삼국유사』 권 제4 의해 제5 진표전간(眞表傳簡).

올림으로서 피해갈 수 있는 지옥이 대응되게 나열되어, 현세뿐 아니라 다가올 내세에서의 고통까지도 면할 수 있다고 한다.

지장신앙 관련 초기 경전인 『지장십륜경』에서도 알 수 있듯, 대지(大地)의 신(神)인 지장보살은 처음에는 현세의 이익과 풍요로움에 그 역할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이것이 점점 현세와 내세 양자를 겸해 다루는 역할로, 또 나중에는 내세 즉 망자의 천도 쪽으로 그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통상적 전이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지장보살이 명부세계의 구원자로서 그 역할이 본격적으로 부각된 것은, 지장신앙과 시왕신앙이 결합하면서부터라 하겠다. 이미 중국 당(唐) 중기에 『예수시왕생칠경』이라는 위경(僞經)이 찬술되어, 지장신앙과 중국 명부신앙이 결합하게 된다. 이때부터 염라대왕을 비롯한 시왕의 명칭이나 지옥에서의 심판 광경 등이 불교경전인 『예수시왕생칠경』에 근거하여 정립되었다.

도교에서 죄의 경중에 따라 인간의 수명이 결정된다는 생각이 불교에도 전해져, 매년 정해진 날에 신들이 모여 인간의 선악을 관찰한 후 복을 많이 쌓은 자는 수명을 늘려준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후 이러한 생각이 발전하여 염라대왕은 지옥의 천자로서 부하들을 거느리고 지옥을 지배하며 나아가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처럼 명부에도 인간세계처럼 위계질서가 있고 인간의 선악을 감시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졌고 그 위계질서로서 시왕의 체제가 생겨났다. 시왕이 가진 각각의 이름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염라대왕은 고대인도 신화의 야마왕, 태산왕은 중국 도교의 태산부군까지 그 유래가 거슬러 올라간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저승의 명부에서는 시왕이 죽은 사람을 심판한다는 생각이 자리잡게 되고 『불설예수시왕생칠경』이라는 시왕에 관한 경전도 생겨나 사람들이 시왕이 그려진 지옥그림을 그려 숭배하게 되었다. 이것을 ‘시왕도(十王圖)라 부르는데 시왕이 각각 책상 앞에 앉아 있고 목에 칼을 찬 죄인들이 심판과 지옥벌을 받고 있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이처럼 시왕에

게 심판받는 장면을 그린 시왕도는 중국, 한국, 일본에서 많이 그려졌다. 불교의 시왕신앙과 함께 도교(道敎)의 시왕신앙도 상당히 성행하여 사람들 사이에 널리 믿어졌다. 사람이 매일매일 행하는 선악은 신들에 의해 천상에 보고된다고 믿어졌고, 시왕을 청하여 죄를 사죄하는 의례도 행해졌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어도 육체만 없어질 뿐 생전에 행한 선행과 악행에 따라 앞으로 어디에 태어날지가 결정된다고 믿는다. 이러한 생각에서 사후심판을 받는다는 시왕 사상이 나오게 되었다. 불교에서의 심판사상은 이러한 근동(近東) 지역의 심판사상 이외에도 불교 이전 인도에서 흥기하였던 브라만교의 업(業)과 응보(應報)의 개념에서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브라만교에서는 일체 생명을 가진 것들은 생전의 업력(業力)에 의해 사후 어디엔가 태어나 전생하며 현재의 상태는 바로 과거에 이룬 업의 결과라고 한다. 그들의 교설에 의하면 인간의 죽음과 함께 육체는 소멸되지만 생전에 행한 업은 소멸되지 않으며, 이 업이 선업(善業)인가 악업(惡業)인가에 의해 육도 중 어디에 태어날지가 결정된다고 한다. 이러한 고대 인도의 업과 응보의 사상은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등 고대 인도사상의 근거를 형성하였으며, 불교의 전래와 함께 아시아 전역에 전해져 그 후 몇 세기 동안 강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후심판의 시왕사상을 낳게 하는 이론적 바탕이 되었다.²⁵⁾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 제7 「바라니사국」 조에 보면 “바라니사국에 있는 정사의 서남쪽에 한 부도가 있고 그 앞에 돌기둥을 세웠는데 높이가 10여척이나 된다. 돌은 매우 깨끗하고 맑아서 거울처럼 사물을 비춘다.²⁶⁾ 그 곳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중생의 모습이 나타나고 선악에 대한 것도 때때로 나타난다” 라는 구절이 나온다.²⁷⁾ 물론 『대당서역기』에서

25) 김정희, 앞 책, pp. 67-68.

26) 김순아, 앞 글, p. 75.

27) x T 51 2087 [0905b12] 大城東北婆羅痾河西有窣堵波，無憂王之所建也，高百餘尺。前建[27]石柱，碧鮮若鏡，光潤凝流，其中常現如來影像。

언급한 돌기둥은 거울이 아니라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왕 석주를 일컫는 것 이지만 이 기록을 통해 인도에서도 오래전부터 선악을 분별하고 비추는 업경대의 개념이 전해왔음을 알려준다.

업경대는 이러한 시왕사상에서 유래하였으므로 그 발생도 상당히 빨랐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의 것으로 여겨지는 『예수시왕생칠경』 변상판화(제5염라대왕도) 1246년 해인사소장(도 1)인 작품에 업경대가 확인되고 있어,²⁸⁾ 고려시대에 이미 업경대가 널리 알려지고 있음을 살필 수가 있다. 고려에 이어 조선시대로 오게 되면 지장보



도 1 『예수시왕생칠경』 변상판화(제5염라대왕도), 1246년, 해인사소장

살²⁹⁾과 시왕은 지옥의 구원자와 심판관으로 민중 사이에 더욱 그 위치를

28) 업경대 모티프는 해인사 소장 고려 판본의 업경을 비롯해 16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반에 이르는 판본에 동일한 업경대 모티프와 찬문 “破齊毀戒煞鷄猪，業鏡照然報不虛，若造此經兼畫像，閻王判放罪消除” 가운데 ‘業鏡照然報不虛’가 방제로 붙어 있다. 이 판본 이외의 지장시왕도 계열의 불화에서는 죄인의 생전의 죄를 비추는 거울로 업경이 방제와 함께 등장하거나, 다섯 번째 지옥의 상징물로 그려졌다. 김순아, 앞 글, p. 77.

29) 지장보살은 예부터 인도에서 ‘프리티비’ 이른바 대지의 덕을 의인화한 바라문교의 지모신을 불교가 받아들인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지장보살이란 말의 산스크리트어로 ‘크시티 가르바’이다. 크시티란 땅을 뜻하고 가르바란 태(胎)나 자궁의 뜻을 지니고 있어 ‘함장’(艦長)이라고 한역하기도 한다. 다시말해 지장이란 모태가 아기를 잉태하는 것처럼 그리고 땅이 만물을 길러 주는 것처럼 힘을 지니고 있는 존재를 뜻한다. 이러한 신성은 고대 종교의 경우 풍요, 다산을 상징하는 지모신 신앙과 뿌리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인도의 경우 범천이 상방 천궁을 다스리는 존재인데 비해 지신은 하방 대지를 다스리는 존재로서 신앙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도의 전통신이 불교에 수용된 계기는 무엇 때문인지 확실히 알 수 없으며 불교에 받아들여진 처음에는 그다지 널리

공고히 하게 된다. 생각컨대 이것은 불보살의 자비 위신력에 의하여 인간의 본질 자성인 개아(個我), 자아(自我)가 깊숙이 잠들어 있는 본성광명(本性光明)에 충격을 줌으로써 그의 생애 필름을 눈앞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인간은 반성과 참회심이 우러나 영적 향상을 기하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마음속에 성령의 빛이 밝게 비취 자신의 전생애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부처님이니 성인을 만남으로써 마음에 진실한 생각이 들게 되고 따라서 자기행위를 돌이켜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과 흡사하다 할 것이다.

Ⅲ. 조선후기 업경대의 현황

업경대는 나무로 제작되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질의 특성상 화재에 약하고, 뒤틀림 등에 의해 오랜 기간 보존이 어렵기 때문에 현존하는 대부분의 유물은 조선후기에 제작된 것 들이다. 조선후기 업경대는 인천 전등사 업경대를 비롯하여 20여구가 현존한다.

연대가 확인되는 작품으로는 17세기에 조상된 1627년의 전등사 목조 업경대 한 쌍과, 1688년 표충사 업경대 1기, 1693년 청곡사 목조 업경대 한 쌍이 현존하고 있다. 세 사찰의 작품은 이후의 업경대의 전형(典型)이

신앙되었던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지장보살은 석가모니불이 입멸하신 뒤 미래의 부처님이신 미륵불이 출현하실 때까지 이른바 부처님이 계시지 않은 시기인 무불(無佛) 시대인 오탁악세에서 번뇌와 죄업으로 고통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는 일을 부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보살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육도에서 윤회하는 중생을 모두 제도하기까지는 자신의 성불을 뒤로 미루겠다는 커다란 서원을 세우고 언제 어디서나 자비행을 행하는 보살로서 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신앙을 받기에 이른다. 이러한 지장 신앙을 널리 믿게 된 것은 중국이며, 그때는 대체로 수나라 때부터라고 한다. 이어 7세기 후반 중국 불교의 전환기에 당대에 유행한 정토신앙과 더불어 지장 신앙도 널리 신앙되기 시작한 것 같다. 일반 보살상들이 영락과 보관 등 화려한 장엄구로 꾸며진 데 비해 지장보살의 모습은 수행하는 비구의 소박한 모습을 하고 있어 도상적인 특색이 있다. 노현석, 「불교의 지옥 고찰- 정법님처경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청구, 1985, p. 31.

되는 중요한 작품이다.

18세기에 나타나는 업경대는 동화사 소장 한 기만 현존하고 있으며, 19세기에도 현존하는 업경대는 파계사 소장 한 쌍이 있다.³⁰⁾

불화 시왕도에서 나타나는 업경대는 해인사가 소장하고 있는 1742년 업경대를 비롯하여 연대가 확인되는 작품으로 18세기부터 업경대를 볼 수 있다. 총 9점이 확인되며 19세기의 작품 또한 연대가 확인되는 업경대는 1855년 화방사 소장을 포함하여 총 7점이다.³¹⁾

30) 조선후기 목조업경대의 대좌 형식 분류 【표 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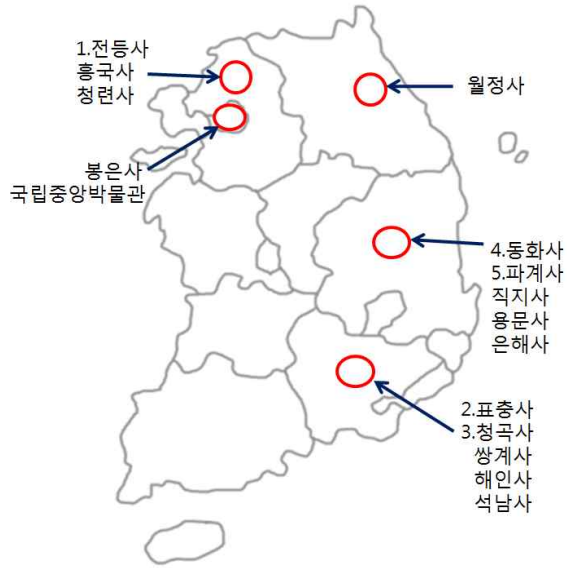
31) 조선후기 시왕도 업경대의 대좌 형식 분류 【표 2】 참고

(표 1) 조선후기 목조업경대의 대좌 형식 분류

연대	소재지	대좌종류	갯수
1627년	전등사/ 창원시성주사	사자대좌	한 쌍
1688년	표충사/ 밀양시	쌍 용	1 기
1693년	청곡사불교문화박물관/ 진주시	사자대좌	한 쌍
1728년	동화사/ 대구광역시	사자대좌	1 기
1862년	과계사/ 대구광역시	대좌분실	한 쌍
조선후기	청련사/ 양주시	사자대좌	1 기
조선후기	쌍계사/ 하동군	사자대좌	1 기
조선후기	해인사/ 합천군	사자대좌	1 기
조선후기	석남사/ 울주군	사자대좌	한 쌍
조선후기	은해사/ 영천시	사자대좌	1 기
조선후기	국립중앙박물관/ 서울특별시	사자대좌	1 기
조선후기	국립중앙박물관/ 서울특별시	사자대좌	1 기
조선후기	국립중앙박물관/ 서울특별시	사자대좌	1 기
조선후기	봉은사/ 서울특별시	기둥형	1 기
조선후기	흥국사/ 경기도 남양주시	기둥형	1 기
조선후기	직지성보박물관/ 문경시 김룡사	기둥형	1 기
조선후기	용문사성보박물관/ 예천군	기둥형	1 기
조선후기	월정사/ 강원도 보덕사	기둥형	1 기

(표 2) 조선후기 시왕도 업경대의 대좌 형식 분류

연대	소재지	대좌종류
1742년	해인사소장	사자대좌
1744년	직지사소장	사자대좌
1744년	옥천사소장	기둥형
1766년	대원사소장	기둥형
1771년	수다사소장	기둥형
1798년	통도사소장	기둥형
1792년	흥국사소장	기둥형
1799년	기림사소장	기둥형
18세기	온양민속박물관소장	기둥형
1855년	화방사소장	기둥형
1872년	보광사소장	기둥형
1878년	화계사소장	기둥형
1885년	흥천사소장	기둥형
1892년	청곡사소장	기둥형
1898년	봉국사소장	기둥형
1923년	안양암소장	기둥형



(그림 1) 조선후기 목조업경대의 소재지 현황



(그림 2) 조선후기 시왕도 업경대의 소재지 현황

1. 17세기 업경대

1) 목조

17세기에 조성된 업경대는 1627년의 전등사 목조 업경대 한 쌍과 1688년 표충사 업경대 1기, 1693년 청곡사 목조 업경대 한 쌍이 현존하고 있다.

전등사소장인 업경대는 인천광역시 시도유형문화재 제47호로 전체높이 110cm, 최대 폭66cm 크기의 한 쌍으로 그 크기와 수법이 비슷하다. 연화 아래에는 업경을 이어 주는 축이 있으며, 연화는 각각 황색과 청색으로 달리 채색 하였고, 그 아래에는 사자가 등으로 받치고 있다.

불교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동물이 사자이다. 주로 사자왕은 부처를 뜻하며, 사자심((獅子心)이라 하여 가장 강하고 겁이 없는 것 같이 불심도 모든 인간 심성 중에서 가장 뛰어난을 말한다.³²⁾ 사자형태의 대좌 역시 연화의 경우처럼 채색을 달리하여 청색과 황색으로 구분하였는데 업경의 아래에는 연화가 받치고 있고 사자의 등에는 화려한 안장이 얹혀있다(도 2)(도 3)(도 4)(도 5). 업경의 형태는 가운데 동(銅)으로 된 둥근 거울이 있고, 그 주위에는 투각기법(透刻-)을 사용하여 화염문(火焰文)으로 화려하게 표현하였다.

32) 박찬수, 앞 책, p. 47.



도 2 1627년 전등사 소장
업경대, 황색사자(앞)



도 3 1627년 전등사 소장
업경대 황색사자(뒤)



도 4 1627년 전등사 소장
업경대 청색사자



도 5 도 4의 얼굴

특히 사자의 발 아래에는 직사각형의 발받침이 놓여 있는데, 명문(銘文)은 판자의 바닥에 묵서(墨書)로 남아 있다(도 6)(도 7). 즉 天啓7년 정유년 인조5년, 1627 9월에 木畫員 세 명이 새겼음을 밝혀져 있다.

다음은 양 업경대 대좌 각각의 명문이다.³³⁾

(도 6) 황색사자 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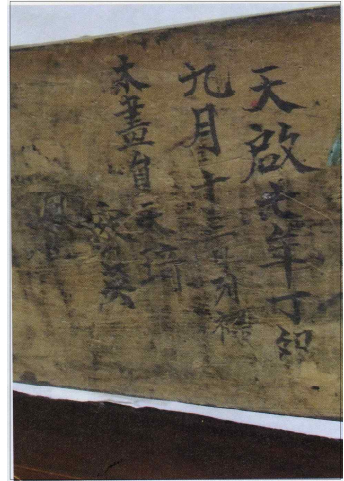
天啓七年丁卯九月

十三日列

木畫員密英

天琦

奉生



도 6 황색 사자대좌 받침 명문

(도 7) 청색 사자대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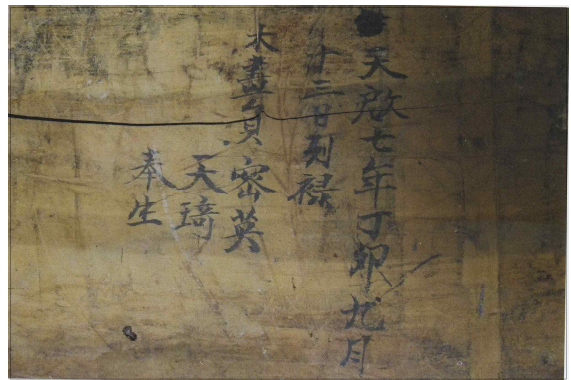
天啓七年丁卯

九月十三日列

木畫員天琦

密英

奉生



도 7 청색 사자대좌 받침 명문

위의 묵서명을 통해서 이 한 쌍의

업경대는 天啓 7년인 1627년 정유 9월 13일에 조성되었으며, 특히 천기, 밀영, 봉생 의 세 목화원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³⁴⁾

33) 김순아, 앞 글, p. 83.

34) 천기(天琦 : -1627-)는 17세기 전반에 활동한 조각승이다. 1627년에 인천 강화 전등사 목조업경대 1점 제작에 목화원木畫員으로. 목조업경대 1점 제작에 밀영과 화원으로 참

밀양시 표충사 소장 업경대는 현재 명부전³⁵⁾(도 8)에 지장보살 좌측에 봉안되어 있으며(도 9) 전체높이 125cm 최대 폭73cm 크기로 대좌가 쌍으로 용이 청색과 황색으로 1기에 붙어있다. 사자로 된 대좌가 청색과 황색으로 각각 따로 만들어져 한 쌍을 이루는데 비해 대좌의 형태가 다른 기



존과는 다르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불교적인 도상적 의미라기 보다는 수미산(須彌山)을 의미하기 위해 설정된 동물일 것으로 보인다. 전체가 거울을 포함하여 나무로 제작되었으며 투각 기법을 사용한 화염문을 화려하게 표현하였다.

康熙27년(1688)에 제작된 영정사의 법구로 다수의 승려들이 소임을 맡았으며, 탁자(불단)의 조각을 담당한 ‘化現居士大仁’ 이

도 8 1688년 표충사 업경대 작에 참여하였다.³⁶⁾ 여기에 기록된 영정사는 표충사의 옛 명칭이며³⁷⁾ 명

여하였다. 밀영(密英 : -1627-)은 17세기 전반에 활동한 조각승이다. 1627년에 인천 강화 전등사 목조업경대 1점 제작에 목화원木畵員으로, 목조업경대 1점 제작에 천기와 화원으로 참여하였다. 봉생(奉生, 鳳生 : -1627-)은 17세기 전반에 활동한 화원이다. 1627년에 인천 강화 전등사 목조업경대木造業鏡臺를 천기 및 밀영과 제작하였다. 안귀숙·최선일, 『조선후기 불교장인 인명사전』, 공예와 전적, 양사재, 2009, p. 43, p. 53, p. 124.

35) 저승의 유명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명부전(冥府殿)이다. 유명계의 시왕(十王)을 봉안하여 시왕전이라고도 하며, 지장보살을 봉안하여 지장전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이 법당 내에는 지장보살이 중앙에 위치하고 좌우로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이 서 있으며 그 양쪽으로 시왕들을 봉안한다. 시왕들 앞에는 시중을 드는 동자가 하나씩 서 있다. 이들 외에도 판관2구, 녹사2구, 장군2구 등이 있어서 명부전에는 모두 29구의 상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사람이 죽으면 그날로부터 49일까지 매번 7일마다, 그리고 100일째 되는 날과 1년,3년이 되는 날 시왕들에게 죄를 심판받는다고 해서 명부전은 예로부터 조상들에게 제를 올리는 근본도량이 되어왔다. 곧 자비로운 지장보살이 계신 명부전에서 제를 올리면 죽은 이들이 시왕도의 인도에 의하여 좋은 곳에 태어난다고 믿기 때문이다. 『한국의박물관3』, 한국박물관연구회, 문예마당, 2000, p. 222.

36) 康熙貳拾柒年歲次戊辰九月日靈井寺明鏡臺上成功都監時僧統政大夫信彦 施主 勝明比丘 普允比丘 翠栢比丘 時執綱 通政大夫 海洽 時書記前判事 守元 時直歲前判事 進文 卓子 雕畫兼良工化現居士大仁 願以此功德 普照成佛道. 김순아, 앞 글, p. 83.

37) 元曉대사가 초창할 때 죽림사, 흥덕왕때 황면선사가 재건하면서 영정사로 고쳤으며

칭을 생략한 일부 명문과 달리, ‘명경대(明鏡臺)’라고³⁸⁾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업경대로 통칭해왔던 이 범구의 명칭에 대한 재고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해주는 예이다. 대체적으로, 수행범구인 거울은 ‘명경’으로 표현하고, 명부신앙의 죄업을 비추는 거울은 ‘업경’으로 지칭한다. 이에 따른 형태적 특징이나 봉안처의 차별성에 대한 단서는 찾을 수 없었다.



도 9 명부전에 봉안된 1688년 표충사 업경대

지금은 표충사라고 부른다. 권상로, 『한국 사찰전서』, 동국대학교출판부, 1979, p. 833.

38) 《七俱胝佛母所說准提陀羅尼經》 또 법은, 하나의 밝은 거울(明鏡)을 취하여 단 가운데에 놓고 먼저 진언을 외어…K1338V36P1115c14L; 又法取一明鏡, 置於壇中, 先誦眞言, 《優婆塞戒經》 불상을 그릴 때 비단 가운데에 아교를 섞지 않으며, 마땅히 갖가지 화관(花貫)과 산화(散花)와 묘불(妙拂)과 명경(明鏡)과 말향·도향·산향·소향과 갖가지 기악과 가무(歌舞)로써 공양하되, 낮과 같이 밤에도 그렇게 하고, 밤과 같이 낮에도 그렇게 할 것이며, 외도가 타락과 보리를 태워서 공양하는 것처럼은 하지 말며, 타락을 탐과 불상의 몸에 바르지도 말고 또 우유로 씻지도 말지니라. 『우바새계경』, p. 91.



도 10 1693년 청곡사 업경대

진주시 청곡사 1693년 업경대(도 10)는 전체높이 110cm 최대 폭57cm의 크기로 한 쌍을 이루고 있는데 그 아래 대좌 또한 사자의 형태로 황색과 청색으로 표현하였다. 연화 아래에는 업경을 이어주는 축이 있고 사자의 등에는 화려한 안장이 얹혀있고, 연화의 채색 또한 각각 적색과 청색으로 구분하였다. 둥근 청동거울과 그것을 둘러싼 연화문이 투각되어 있고 아래에 좁고 긴 연화가 받치고 있다. 청동거울 원 둘레에 세 개의 고리가 달려있으며 화염문 부분에 탈부착이 가능하다. 동으로 된 거울 중앙에는 제작시기와 봉안처, 제작 참여자와 함께 명문이 새겨져있다(도 11)(도 12).³⁹⁾ 康熙三十二年癸酉正月日」靑谷寺法堂明金竟化主三學」 ‘강희32년 계유 정월인 청곡사 법당 명경 화주 삼학’이라는 명문에 의거, 법당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그동안 불교목공예 분야에서는 사자좌의 대좌에 목재 혹은 청동재질의 거울이 있는 장엄구를 업경대로 통칭해왔다. 사자좌 이외에도 채색이 가해진 다양한 양식의 대좌와 화염문으로 장식된 거울들을 전생의 죄악을 비쳐주는 업경대로 인식해 왔는데 이 명문은 앞의 표충사 업경대와 함께 이런 인식이 재고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또 하나의 예이다.⁴⁰⁾ 따라서 이러한 형식을 업경대라는 명칭보다 명경대로

39) 김순아, 앞 글, p. 83.

고쳐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명문 양옆에는 다양한 문양을 부조하였는데, 가장 바깥 면에는 운문(雲文)을 장식하였고, 그 안에 칠보(七寶)와 학(鶴)을 장엄하였다.⁴¹⁾

명경대는 거울을 걸 수 있는 몸체부분과 그것을 지지하는 대좌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몸체부분은 거울이 직접 걸리는 부분으로 불의 모습을 형상화한 화염형태이다. 이에 반해 대좌 부분은 사자의 형상을 하였으며, 등에는 연꽃 가지를 표현하여 몸체 부분과 결구(結構)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측면에 네발을 약간 앞 쪽으로 딛고 고개를 앞으로 돌린 모습이나 앞으로 약간 내민 다리 등은 두 마리 모두 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으나 후대에 채색을 달리하여 차이를 두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업경대와 달리 나무가 아닌 청동제의 거울을 사용한 업경 본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아울러 조성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으면서 그 명칭을 업경이 아닌 명경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게 평가된다.⁴²⁾



도 11 청곡사 업경대 동으로 된 거울 명문(황색)



도 12 청곡사 업경대, 동으로 된 거울 명문(청색)

40) 청곡사 소장 '법당용 명경'이라는 명문을 참고하여 당시에는 '업경'이 아닌 '명경'으로 불리었고 따라서 이러한 전거를 통해 업경대라는 명칭보다는 명경대로 고쳐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최웅천, 「조선후반기 제1기(광해군-경종대) 불교공예의 명문과 양식적 특성 연구」, 『강좌미술사』 38, 2012, pp. 169-170.

41) 최웅천, 앞 글, p. 170.

2. 18세기 업경대

1) 목조

18세기에 조성된 업경대는 하나의 작품이 현존하고 있다. 1728년 동화사 업경대는 정보박물관에 소장되고 있으며, 후대에 일부 보수되었지만 조성 시기를 알 수 있어 조선후기 업경 연구에 큰 도움이 된다. 18세기 업경대는 앞의 17세기와 같이 사자대좌를 받치고 있지만 현재 한 쌍이 아닌 하나가 있다(도 13). 그러나 형태나 채색이 황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청색사자대좌와 한 쌍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업경대는 높이 61cm, 최대 폭 47cm 크기의 사자대좌로 볼륨감 있게 조각된 연화에 받쳐진 나무로 된 업경을 꽂을 수 있게 분리되어 소장하고 있고, 한 조로 조각된 듯 보이는 목사자 대좌는 다른 대좌와는 달리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다. 화염에 둘러싸인 가운데 둥근 거울을 부착한 판 속에 녹색 안료로 조성기를 기록하였다(도 14). 명문에 의하면 이 업경대는 옹정(擁正)3년인 1725년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고, 화원을 지칭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화염문에 나타난 명문을 해석해보면,⁴³⁾ ‘오호라. 옹정 3년 을사(1725) 3월 그믐 한밤중에 화마(火魔)의 재난을 당했다.”... 이것을 만든 때는 이해 5월부터 戊申(1728)까지 었다. 갖가지 조각물을 복구한 이는 청장문식(淸章汶湜) 스님이 아니고 누구이랴.’ 로 되어 있다. 이것으로 보아 동화사에 원래 있던 업경대가 을사년(1725)화재로 인하여 소실되고 다시 만들어 완성한 것이 무신년(1728)임을 알 수 있다.

42) 최응천, 앞 글, p. 170.

43) “嗟呼嗟呼 雍正三年乙巳季春晦 半夜遭回象之變... 又造此 則自 是年五月至戊申. 各色刻物興復者 非章汶湜 又誰乎.” 김순아, 앞 글, p. 84.



도 13 1728년
동화사정보박물관 소장
업경대



도 14 1728년 동화사정보박물관
소장 화염문 명문

2) 시왕도의 업경대

사찰의 지장전이나 명부전에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좌우에 시왕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옥에서 죽은 자의 죄를 심판하는 열명의 왕인 시왕도⁴⁴⁾를 그린 불화에서 제5염라대왕도에 업경대를 쉽게 찾아 볼 수 가 있다. 시왕도의 화면 하단을 보면, 지옥장면⁴⁵⁾의 경우 각 시왕의 주재지옥이 규칙적으로 등장하며, 도상 표현 역시 동일한 도상이 활용되고 변용되어가는 현상이 두드러진다.⁴⁶⁾

조선후기 시왕도 중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작품은 18세기 작품으로 제작년대가 확실한 작품은 해인사 시왕도 <1742> , 직지사 시왕도

44) 조선후기 시왕도의 기본적인 형태는 상단에 시왕과 권속이 그려지고, 하단에는 지옥 형벌장면이 표현되는 것이다. 상단에 표현된 인물 중 먼저 시왕은 通天冠을 쓰고 曲領大袖袍를 입고 大帶를 두른 모습, 日月爵弁을 쓰고 곡령대수포를 입고 대대를 두른 모습, 頭鬘頓項에 披膊을 걸치고 胸甲을 차고 甲身을 두른 甲冑를 입은 모습으로 나뉜다. 일월작변을 쓰고 있는 왕은 대부분 염라대왕과 평등대왕으로 표현되고 있고, 갑주를 입은 모습은 오도전륜대왕을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머지 대왕은 통천관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권속으로는 관관, 사자, 천녀, 동자, 옥졸 등이 표현되어 있다. 이들 중옥졸은 장엄물을 들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鏡鈹에 깃발을 매단 것을 들거나 幡을 들고 있는 경우가 있다. 천녀는 繖扇을 들거나 尾扇 등을 드는 경우가 많다. 또한 동자는 합이나 벼루, 복숭아 등의 공양물을 들고 있고, 사자는 두루마리를 들고 합장을 한 모습을 하고 있다. 관관의 경우에는 홀을 들고 있거나 합장을 하고 있는 등의 여러 모습을 하고 있다. 하단에 표현된 지옥형벌장면은 대체로 제1 진광대왕도는 釘身地獄, 제2조강대왕도는 抽腸拔肺地獄, 제3 송제대왕도는 舌耕地獄, 제4 오관대왕도는 鑊湯地獄, 제5 염라대왕도는 業鏡地獄과 椿磨地獄, 제6 번성대왕도는 刀山地獄, 제7 태산대왕도는 鋸解地獄, 제8 평등대왕도는 石礪地獄, 제9도시대왕도는 雪山地獄, 제10 오도전륜대왕도는 鐵車地獄과 黑暗地獄이 표현되고 있다. 김혜원, 「조선후기 시왕도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청구, 2008, p. 59.

45) 지옥은 원어로는 Naraka(奈落迦) 또는 Niraya(泥犁)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락의 장소, 즉 지하에 있는 牢獄을 가리키는 말이다. 지옥에 대한 관념은 예로부터 각지의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다. 지옥사상이 불교에 도입된 이래 지옥에 대해 언급한 경전 또한 많이 생겨났다. 그 가운데 지옥의 모습을 가장 상세하게 서술한 것이 『正法念處經』인데, 제3 地獄品에서는 팔대지옥설을 전개하고, 특히 8지옥 각각에 딸린 16내지 18소지옥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외에도 『十八泥犁經』, 『觀佛三昧海經』, 『地獄本願經』, 『問地獄經』 등에서는 18지옥을 설명하고 있으며 30지옥, 32지옥을 들고 있는 경전도 있다. 김혜원, 앞 글, p. 34.

46) <해인사 시왕도>는 현재 시왕전에 봉안하고 있는데, 중앙에 1739년에 제작한 <지장시왕도>를 봉안하고, 좌우에 2폭씩 4폭의 <시왕도>를 봉안하였다. 4폭의 <시왕도>는 보수하면서 화기가 지워져 화기는 남아 있지 않으나, 보수시 배면에 1742년 제작되었다고 배면에 묵서하였다. 김윤희, 「17세기 화승 哲玄作 十王圖 연구」, 『불교미술사학』 15, p. 190.

〈1744〉⁴⁷⁾ 옥천사 시왕도 〈1744〉, 대원사 시왕도 〈1766〉, 수다사 시왕도 〈1771〉 통도사 시왕도 〈1775〉, 흥국사 시왕도 〈1792〉, 기림사 시왕도 〈1799〉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18세기〉 총 9점이 업경대를 찾아볼 수가 있다. 이 중 1742년 해인사 시왕도와 1744년 직지사 시왕도 두 작품은 업경대의 전형이 되는 중요한 작품이다. 조선후기에는 보다 시왕도의 제작이 활발해졌다고 하나 현존하는 시왕도는 대부분이 18세기에 많이 제작되었고 19세기에도 다수 제작되었는데 후기 시왕도 중 제작년대가 가장 이른 것은 해인사 명부전 시왕도로 1742년 작품이다. 이 시왕도를 보면 불화가 제작되었을 당시에 조선시대의 특징이 완전히 정착되고 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해인사 시왕도(도 15)는 전형적이며 18세기의 가장 일반적인 형식인 10폭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견본채색이며 내용면에서는 다른 시왕도에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보통 시왕은 높은 의자에 앉거나 아니면 폭이 좁은 3폭 병풍으로 뒤로 한 채 앉아 있으나 여기에서는 눈높이까지의 높이에 폭이 넓은 의자에 앉고 그 뒤로 활짝 펴진 큰 병풍은 화면의 폭을 다 차지해서 뒷 공간을 완전히 분리해 놓고 있다. 책상에는 벼루와 여러 권의 책들이 쌓여 있는데 이러한 것은 표현이 인물 묘사에 비해 아주 어색하고 입체감이 없어서 곧 무너져 버릴 것 같다. 시왕을 둘러싼 권속들은 아주 작고 또 각기 다른 크기로 그려져 있으며, 서로 이야기하듯 토론하는 재판 광경을 보여주고 있다. 하단의 지옥 부분 그 아래에는 옥졸과 죄인들이 그려져 있는데 곳곳에 아기자기한 도상을 그려 재미있게 구성되었으며 후기 시왕도의 도상과는 다른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 제5염라대왕은 머리에 금강경을 얹고 잔뜩 찌푸린 채 화면의 오른쪽을 응시하고 있으며, 책상 위에는 보자기에 묶인 책들이 보인다. 권속들은 어수선한 느낌이 들만큼 여러 가지 행동을 보이며, 업경대(도 16)는 사자의 대좌로 업경을 받치고 있다. 사자는 웅크리고 있는 모습

이며, 업경은 화염문이 생략된 둥근 거울로 소를 도살하는 광경이 비치는데, 앞에서 경전에 서술한 바와 같이 염라대왕 앞 오른쪽 하단에 있는데 이것은 둥근거울이라기 보다는 구를 연상시키는데 경전에 이야기한 『능엄경』 화주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죄인을 항변하는데 사자로부터 두루마리를 건네 받은 판관은 호통을 친다. 보통 염라대왕청에는 업경대와 쇠절구로 찢는 형벌이 같이 등장한다.



도 15 1742년 해인사 (명부전시왕도)



도 16 1742년 해인사
업경대

1744년 직지사 시왕도(도 17)는 옥천사 시왕도와 같은 시기에 제작되었으나 색감이나 하단의 구성 방식이 다르나 해인사 시왕도와 유사한 점이 많고 현재는 6폭만 전해진다. 시왕의 넓은 어깨와 큰 얼굴은 해인사 시왕도와 비슷하거나 어깨 부분과 깃에 무늬가 있어서 왕의 옷임을 표현하고 있다. 이 시왕도에서 가장 큰 특징은 지옥장면과의 분리 방법인데 다른 시왕도는 구름이나 성곽을 구획하여 확실하게 영역을 구분한 것에

비해 계단을 통해 자연스럽게 상단과 하단이 연결되어 있어서 시왕청 안마당에서 재판받는 광경을 표현하고 있다. 시왕이 크게 자리 잡고 권속들이 아래까지 배치되어 지옥부분이 눈에 잘 띄지 않는데 형벌 장면도 일반적인 형벌 장면을 배열하고 있어서 특이한 점은 별로 없다. 시왕과 권속에 비중을 둔 느낌이고 지옥장면은 간략하게 묘사되고 있으며, 웅크리고 앉아있는 사자형태 대좌로 업경대(도 18)를 받치고 있다. 구의 형태인 거울에 화염문이 생략된 형태로 거울에 비치는 모습은 소를 도살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도 17 1744년
직지사(명부전시왕도)



도 18 1744년 직지사 업경대

직지사 시왕도와 같은 시기에 제작된 옥천사 시왕도 1744년 작품(도 19)은 18세기까지 보편적인 제작 형식인 10폭 형식으로 8폭이 남아있다. 색감은 중후하여서 가볍거나 산만해 보이지 않으며 옷선 처리나 주름들이 유연하다. 구도는 크게 3단으로 나뉘어져 상단을 구름과 검은색 배경의 하늘이고 중단은 시왕과 권속이 차지하며 하단은 구름이 일직선으로 배열되어 지옥장면을 구분하고 있다. 시왕은 정면자세나 약간의 측면자세로 어깨가 넓은 당당한 체구로 등받이가 높고 용머리 장식이 달린 큰 의자에 앉아 좌종을 압도하고 있다. 시왕과 권속들이 얼굴이나 자세 등이 자연스럽고 표현에 있어서도 그 묘사기법이 세심하고 세련되었다. 하단의 지옥 장면은 조선시대 시왕도의 배열과 같으며 상단에 비하여 하단 인물들은 굉장히 작게 그려 상단과 크게 대조를 이루어 시왕과 권속들이 내려다 보고 있는 느낌이 든다.

제5염라대왕은 日月이 있는 경전을 엮고 있으며 다른 대왕보다도 더 굳은 모습으로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굳게 다물고 지옥을 내려다보고 있다. 이 지옥은 업경대(도 20)와 쇠절구가 있으며 해인사 시왕도와 직지사 시왕도에 나타나는 업경대의 형태와는 달리 대좌가 기둥형 형태로 단순해진다. 연화가 업경을 받치고 있으며 이 받침의 형태로 보아 화염문이 생략된 둥근 구의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거울에 비치는 모습은 소를 도살하고 있다. 이 형벌을 다루는 옥졸의 모습이 실감나게 표현되었고 압사당한 시신들이 밖으로 흘러넘치지 않게 쓸어 담은 옥졸의 모습도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도 19 1744년 옥천사(명부전시왕도)



도 20 1744년 옥천사 업경대

1766년 대원사 시왕도(도 21)는 10폭 형식이며 옥천사 시왕도와 20여 년 간의 시기적 간격이 있는데 이전의 시왕도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원사 시왕도는 궁중 안에서 지옥을 내려다보는 형상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뒷 배경에는 병풍에 그림을 그린 정도에서 벗어나 파초나 소나무 등을 넣어 경치를 살리며 또한 거리감까지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과 건물의 배치로 인해 시왕이 좀 작아지고 권속들은 더욱 작아져 죄인들과 크기가 별 차이가 없다. 하단 지옥부분은 하늘색에 가까운 백록으로 보이나 탈색되어진 것을 감안하면 흰색을 섞은 탁한 초록색으로 보이며 상단과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백록색이 지옥장면 모두에 배경색으로 사용된다. 한편 지옥장면은 후대로 갈수록 반복되는 과정에서 간략화되고 형식화된 경향이 강한데 죄인들의 동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배치를 보면 제5염라대왕도는 업경과 쇠질구와 방아가 등장하는데 이 시왕의 하단에는 거의 변함없이 업경이 등장한다(도 22). 대좌는 기둥형 형태로 연화



도 21 1766년
대원사(명부전시왕도)



도 22 1766년 대원사
업경대

에 업경을 받치고 있으며, 화염문이 생략된 둥근 구 형태의 거울에는 소를 도살하는 장면이 비치고 있다.

1771년 수다사 시왕도(도 23)에서는 염라대왕, 도시대왕이 일월작변(日月爵弁)을 쓰며, 권속은 판관, 사자, 천녀, 옥졸 등이 등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자는 두루마리를 세워서 비스듬하게 들고 있거나 합창을 하고 있는데 대원사 유형에서 표현된 사자가 두루마리를 가로로 들고 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천녀는 산선(傘扇)을 들거나 미선(尾扇) 등의 부채를 드는 경우가 많고 옥졸은 당과(鎗鈹)에 깃발을 매단 것을 들거나 변을 들고 있다. 동자 역시 옥졸처럼 용머리 장이 있는 변(幡)을 들거나 벼루, 두루마리 등을 들고 있다. 제5 염라대왕도에서는 업경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도 24).

기둥형 대좌로 연화에 둥근거울이 받쳐져 있으며 거울 안에 비치는 모습은 긴 몽둥이로 소를 도살하는 모습이 비친다. 하지만 업경대 앞에는 옥졸과 망자는 표현되지 않았고, 두루마리를 펼쳐 읽는 판관의 모습만이



도 23 1771년 수다사 (명부전시왕도)



도 24 1771년 수다사 업경대

표현되었다. 또한 화면 왼쪽 끝에는 손에 깃발을 든 사자가 말을 타고 달려 나가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 장면은 범어사 유형의 다른 시왕도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수다사 시왕도 만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1792년 흥국사 시왕도의 특징은 전체화면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도 25). 즉, 화면을 빈 공간 없이 채우고 있고 심지어는 시왕의 책상 위에도 문자도와 비슷한 형태의 지물이 표현된 점과 나무나 바위 등 자연요소를 배치한 것에서도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시왕의 심판 장면은 시왕과 권속의 크기가 허리를 비트는 등 동작이 자연스러워졌다. 등받이는 높이가 낮지만, 용머리 장식을 한 경우가 있다. 지옥형벌장면은 화면을 분할하는 구름도 구름만 표현하거나 구름기둥과 함께 나타나있다. 또한 성곽과 문을 함께 표현하여 시왕이 심판하는 곳과 지옥형벌을 받는 곳이 성 안과 밖으로 나뉘으로써 다른 유형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남양주 흥국사 유형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10폭의 시왕도가 전부 남아있는 것이 아니어서

지옥형벌 장면을 모두 확인할 수 없지만 제5 염라대왕도의 업경대를 제외하면 각 지옥을 주재하는 왕과 지옥이 섞여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홍국사 유형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홍국사 업경대(도 26)도 기둥형 대좌로 화염문이 생략된 둥근거울을 받치고 있다. 거울부분은 마치 구가 아닌 평면 거울임을 강조하는 것처럼 색을 빨간 띠로 표현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유형을 통해 18세기 시왕도는 시왕의 심판장면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둥근 거울 아래에는 연화가 업경을 받치고 있으며, 거울 속에는 긴 몽둥이로 소를 때려 죽이는 장면이 있어, 생전에 가축을 도살한 사람의 죄가 업경에 나타나는 것을 묘사하였다. 거울 속에 소를 도살하는 업을 묘사한 것이 실물로 전하는 것은 현재로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다만 불화의 시왕도에 나타나는 업경대의 모습에서 그 연원을 추구하여 볼 수 있다. 18세기후에 나타나는 작품을



도 25 1792년 홍국사
(명부전시왕도)



도 26 1792년 홍국사
업경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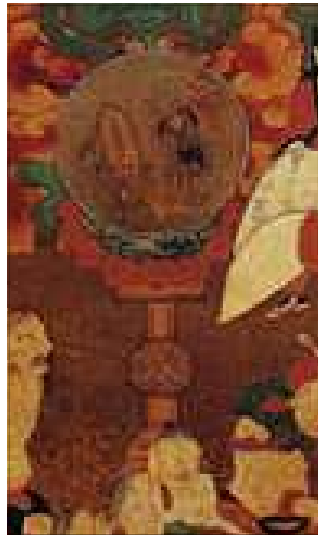
보면 한 형태의 받침대좌, 거울 속에는 소를 도살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 외에도 불화에 표현된 업경대는 모두 비슷한 형태로서, 받침이 단순하고 거울의 표현은 둥글거나 타원형의 화염문이 생략되거나 단순한 형태가 주류를 이룬다. 아마도 불화 속 업경대가 실물로 사찰에 존재하게 되면서부터는 명부를 표현하고자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장식을 더하여 화염문이나 대좌에서 더욱 장엄을 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1798년 통도사 시왕도(도 27) 는 모두 10폭으로 보존상태가 좋은 편으로 배경에 아무것도 넣지 않아서 단조롭기는 하지만 오히려 산만한 느낌이 없어서 시왕에게 바로 시선이 집중되어 지는 효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등 높은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 시왕의 의자는 아예 보이지 않고 좁은 병풍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수염의 처리는 세심하고 세련된 표현을 보인다.

상단과 지옥장면을 구름으로 구분하였는데 두텁고 구불구불하게 배치하여 상단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시왕 주위에 시립한 권속들은 별



도 27 1798년
통도사(명부전시왕도)



도 28 1798년 통도사
업경대

다른 큰 움직임은 없지만, 명부에 허리를 구부리고 적거나 읽고 있는 모습, 특히 양손을 머리에 쓴 관에 얹고 고쳐 쓰는 모습이 반복된다. 하단의 지옥장면은 흔히 경전에 나오는 일반적인 시왕과 해당지옥의 배열과는 달리 제5염라대왕은 빠짐없이 업경대가 등장하고 한쪽에서는 쇠철구에 넣고 찼어지는 모습이 표현된다(도 28). 기둥형의 대좌이며 위에는 연화가 표현되어 있으며 둥근거울을 받치고 있다. 거울의 둘레에 테가 둘러져 평면화시키고 있다. 둥근거울 안에는 긴 몽둥이로 소를 도살하는 모습이 비친다.

1799년 기림사 시왕도(도 29) 는 상단에 시왕과 권속이 그려지고, 하단에는 지옥형벌 장면이 표현되고 있다. 권속으로는 판관, 사자, 천녀, 옥졸 등이 표현되어 있다. 판관이 의자에 앉아 동자와 함께 종이를 잡고 업경대에 비친 죄를 적고 있는 듯 하며, 그 모습을 지장보살이 합장을 한 채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다. 옥졸이 망자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업경대를 쳐다보게 하는 업경지옥과 3명의 망자가 팔과 다리를 묶인 채 덩굴고 있



도 29 1799년 기림사
(명부전시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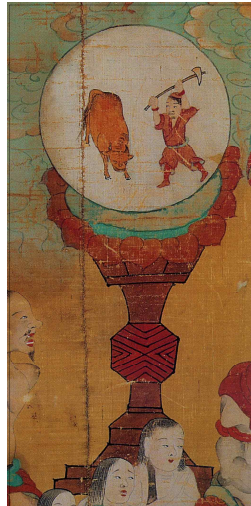
도 30 1799년
기림사 업경대

는 모습이다. 이 두루마리 2개를 들고 업경대 쪽을 쳐다보고 있으며, 동자는 주머니를 들고 관관을 쳐다보고 있다(도 30). 기둥형대좌로 빨간 채색으로 연화가 표현되어 있으며 그 위에는 구 형태의 둥근거울을 받치고 있다. 거울에는 긴 몽둥이로 소를 도살하는 모습이 비쳐지고 있다.

18세기로 추정되는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시왕도(도 31)는 관관이 의자에 앉아 동자와 함께 종이를 잡고 업경대에 비친 죄를 적고 있는 듯 하며, 그 모습을 지장보살이 합장을 한 채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다. 바위로 둘러싸인 술 안에 철 방아로 망자를 찢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술과 지지대 사이로 2명의 망자가 손과 발이 묶인 채 끼어있으며, 철 방아를 잡고 있는 옥졸 뒤로 3명의 망자가 합장을 한 채 쳐다보고 있다. 옥졸이 망자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업경대를 쳐다보게 하는 업경지옥과 3명의 망자가 팔과 다리를 묶인 채 뒹굴고 있는 모습이다. 관관이 두루마리 2개를 들고 업경대 쪽을 쳐다보고 있으며, 동자는 주머니를 들고 관관을 쳐다보고 있다. 이 또한 업경대 대좌는 기둥형으로 빨간 채색을 띠고 있는 연화에 둥근거울을 받치고 있다(도 32). 거울 안에는 긴 몽둥이로 소를 도살하고 있는 모습이 비치고 있다.



도 31 18세기
온양민속박물관
(명부전시왕도)



도 32 18세기
온양민속박물관
업경대

3. 19세기 업경대

1) 목조

19세기에 조성된 업경대는 파계사 소장 목조업경대(도 33)로 1862년 작품이 현존하고 있다. 현재 쌍으로 보여 지는 동으로 된 거울 2기가 소장되어 있으나, 대좌는 분실되고 없다. 파계사는 신라 애장왕 5년(804)에 심지왕사(心地王師)가 창건하였고, 1605년부터 1646년에 걸쳐 임진왜란으로 불탄 절을 계관법사(戒寬法師)가 중창하였으며, 숙종연간에 현웅스님이 삼창하였다. 왕실과 파계사와의 인연은 조선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줄곧 이어진다.

업경대는 지름 87cm, 높이 63cm의 크기로 동으로 된 거울주위에 투각 기법을 사용하여 화염문을 화려하게 표현 하였고 아래쪽에는 대좌와 분리될 수 있도록 나무로 된 축이 있다. 거울부분이 쌍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대좌는 사자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 33 1862년 파계사소장 업경대

거울뒷면에 명문이 기록되어 있다.⁴⁸⁾

48) 「同治元年壬戌十二月十六日」圓鏡大施主本邑西上達成里居住」乾命癸丑生吳應守保體」坤命乙亥生金氏保體」平生所願如意成就之大願」. 1862년 12월 16일에 달성리에 사는 계축생 남자 오응수와 을해생 여자 김씨가 평생 소원성취를 기원하며 원경을 시주했다. 김순아, 앞 글, p. 84.

「동치원년입술십이월십육일」 원경대시주본읍서상달성이거주」 건명계축
오응수보체」 곤명을해생김씨보체」 평생소원여의성취지대원」.
업경이나 명경이란 명칭 대신 원경으로만 표현되어 있다.

2) 시왕도의 업경대

19세기에 시왕도 중 제작연대가 확실한 작품은 화방사 시왕도<1855>
보광사 시왕도<1872> 화계사 시왕도<1878> 흥천사 시왕도<1885> 청곡
사시왕도<1892> 봉국사 시왕도<1898> 안양암 시왕도<1923> 총7점 업경
대를 찾을 수 있다.

1855년 화방사 소장(도 34)인 조선후기의 지장보살도와 시왕도이다. 총
8폭으로 19세기에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천여(天如)가 수화승이
되어 제자들과 함께 조성한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이다. 10폭 가운데 7폭
만 남아있는 가운데, 각 폭 모두 상단에는 시왕이 등 높은 의자에 앉아
관관과 사자, 동자, 옥졸 등 권속을 거느리고 망자를 심판하는 모습이 표
현되었으며, 구름으로 분리된 하단에는 지옥에서 망자가 벌을 받는 장면
이 그려져 있다. 제 5엽라대왕도 에는 절구에 망자를 넣고 찢는 대애지옥
(確磴地獄)과 업경이 나타나고 있다(도 35).⁴⁹⁾ 기동형 대좌에 연화와 동일
한 채색을 한 둥근거울이 받쳐져 있으며 거울 안에는 소를 도살하는 장
면이 비치고 있다.

49) 김정희, 「19세기 지장보살화의 연구」, 『불교미술』 12, 동국대학교박물관, 1994. p. 148.



도 34 1855년 화방사
(명부전시왕도)



도 35 1855년 화방사 업경대

1872년 보광사 시왕도(도 36) 에서는 어깨부분과 가슴부분에 황선을 커다란 문양을 넣어 좀 더 장식적인 요소를 배치하였고, 구름이 성곽부분에 나타나는 구름과 닿지 않게 표현 하였다. 또한 병풍의 배경에 산수화를 표현한 것 역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지장보살과 좌측 합장하며 지장보살을 쳐다보는 염라대왕, 그림中间的 몇몇 판관들과 옥졸들, 특히 그림中间的 한 판관은 비뚤어진 판을 다시 쓰려는지 아니면 지장보살의 출현으로 영망이 된 재판이 염려스러운지 머리를 감싸고 인상쓰는 모습이 참 재미있고 익살스럽다.

보광사에 나타나는 업경대 앞에 형태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도 37). 대좌는 기둥형의 형태이지만 연화에 받치고 있는 거울의 형태는 둥근형이 아닌 긴 타원형의 모습으로 그 주위에는 염주문양으로 둘러져 있으며 거울 안에 비치는 모습에는 소를 도살하는 장면이 노란 직사각

형 안에 비치며 그 주위에는 별자리 문양이 표현이 되어있다. 조금 더 업경대의 형태와 색감이 화려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구 형태의 둥근 모습의 업경이 평면화 되고 완전한 거울 형태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도 36 1872년 보광사
(명부전시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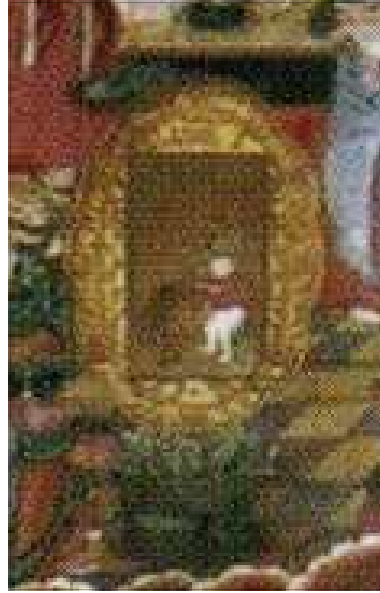


도 37 1872년 보광사 업경대

1878년 화계사 시왕도는 전체가 완전하게 남아 있어 이들의 화풍을 파악할 수 있는 작품이다(도 38). 각 시왕도의 구성은 성벽을 중앙에 그리고 위에는 시왕의 심판장면이 아래에는 망자들의 지옥형벌 장면이 상하로 길게 그려져 있는데, 화계사시왕도, 보광사시왕도 등에서 보이는 구성을 따르고 있다. 업경대의 모습이 다른 작품에 비해 윗부분에 나타나고 있으며(도 39) 기둥형 대좌에 긴 타원형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주위에는 염주문양으로 두껍게 주위에 감싸고 있으며 직사각형의 틀 안에 소를 도살하는 장면이 비치고 있다. 색감은 화려하지 않은 황동색으로 대비하여 전체적 비슷한 색으로 조합이 이루어져있다.



도 38 1878년 화계사
(명부전시왕도)



도 39 1878년 화계사 업경대

1885년 흥천사 시왕도(도 40)도 다수의 등장 인물이 밀집되고 계단이 있는 단(壇)위에 시왕의 공간이 마련되어 복잡한 화면을 이루는 특징으로 1872년 보광사 시왕도와, 1898년 봉국사 시왕도와 같은 특징을 이루고 있다.

이 또한 업경대의 모습이 시왕의 밑에 바로 나타나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색감이 뚜렷한 파란색으로 마치 중요한 부분에만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놓은 것처럼 보인다(도 41). 긴 타원형의 주위에는 파란 띠가 둘러져 있으며 기둥형의 대좌를 받치고 있다. 바탕색과 대좌의 색깔이 비슷하여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업경의 거울 안에는 소를 도살하는 장면이 비쳐지고 있다.



도 40 1885년 홍천사
(명부전시왕도)



도 41 1885년 홍천사 업경대

1892년 청곡사 소장(도 42) 인 시왕도는 자기의 나이에 따라 십대왕(十大王)들을 만나게 되는데, 십대왕이 죄인들에게 죄를 묻고 주는 방법이 각각 달라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십대왕이 만들어진 것이다. 49일(49제)의 제를 명부전에서 하게 되며 이날의 생전의 업을 심판 받고 극락과 지옥으로 가는 날 이라한다. 시왕의 심판장면이 아래에는 망자들의 지옥형벌 장면이 상하로 길게 그려져 있는데, 하단부분에 업경대의 모습(도 43)을 볼 수가 있다. 나무로 된 기둥형의 대좌에 빨간 화염문이 둥근거울에 둘러져 있으며 거울 안에는 소를 도살하는 장면이 비치고 있다. 앞에서는 다른 거울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19세기에는 업경이 둥근형이나, 타원형의 다양한 형태를 볼 수가 있다.



도 42 1892년 청곡사
(명부전시왕도)



도 43 1892년 청곡사 업경대

1898년 봉곡사 시왕도(도 44) 는 다수의 등장인물이 밀집되고 계단이 있는 단(壇) 위에 시왕의 공간이 마련되어 복잡한 화면을 이루는 특징이 있다. 시왕의 바로 밑에 부분에 업경대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도 45). 기둥형 대좌에 긴 타원형의 업경이 연화에 받쳐져 있다. 주위에는 염주 문양의 파란 띠가 둘러져 있으며 안에는 소를 도살하는 장면이 비친다.

1923년 안양암 소장 시왕도(도 46) 은 지장보살도의 한 형식으로 명부를 관장하는 시왕들의 재판모습과 지옥에서 고통받는 망자들을 표현한 불화로써 화기에 의하면 1922년 고산축박(古山竺迫), 학송(鶴松), 학눌(鶴訥) 등이 19세기 말 서울 경기지역 시왕도의 도상을 그대로 따라 제작한 것이다. 시왕도 전체가 완전하게 남아 있어 이들의 화풍을 파악할 수 있는 작품이다. 각 시왕도의 구성은 성벽을 중앙에 그리고 위에는 시왕의 심판장면이 아래에는 망자들의 지옥형벌 장면이 상하로 길게 그려져 있는데, 화계사 시왕도, 보광사 시왕도 등에서 보이는 구성을 따르고 있다. 전체바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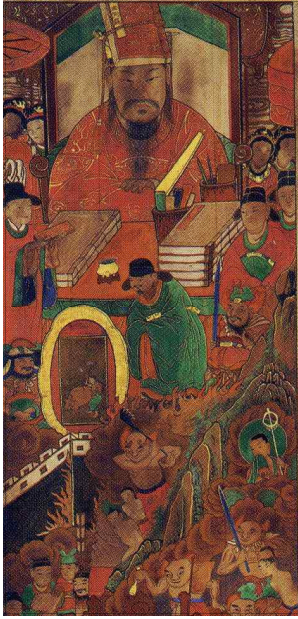
과 색의 대비가 비슷하여 업경대가 한 눈에 알아 볼 수가 있다(도 47). 긴 타원형의 주위에는 화염문을 표현한 듯 거울주위에 노란띠가 둘러져 있으며 안에는 직사각형이 하나 더 있다. 여기에는 별자리 문양은 보이지 않고 안에는 소를 도살하는 장면이 비친다. 대좌는 가려져 자세히 보이지는 않으나 기둥형일 것으로 보인다.



도 44 1898년 봉국사
(명부전시왕도)



도 45 1898년 봉국사 업경대



도 46 1923년 안양암
(명부전시왕도)



도 47 1923년 안양암 업경대

IV. 조선후기 업경대의 특징

조선 후기 업경대는 목조로 조각되어 실물로 존재하는 것과 불화 속에 표현된 업경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실물로 존재하는 목조 업경대는 구리로 된 둥근 업경에 화염이 둘러 있고, 업경의 아래에는 연화가 받치고 있으며 그 아래에 대좌가 설치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업경이나 화염, 연화는 거의 변화 시기에 상관없이 등장하는 요소이나 대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거울은 동으로 된 것이 많고, 나무로 거울의 형태를 깎은 것도 있다. 동으로 된 것은 주로 나무로 된 틀에 끼우도록 되어 있으며 형태로 대체로 둥글다. 그런데 이 원형은 단순히 평면의 원형보다는 볼록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더 많다. 이것은 이 거울이 단순한 평면의 거울이 아니라 구의 형태임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능엄경』에는 “악이 나타나는 업경과 火珠(화주)가 있어 지은 죄를 드러내고 모든 일을 비추어 본다.”는 내용이 있는데, 인간의 죄업을 비추어 보는 것은 업경과 화주가 있고, 이 볼록한 형태는 화주를 나타낸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동으로 만든 거울은 대부분이 볼록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것이 화주라는 또 하나의 근거는 이 원형이 거울을 둘러싼 화염 모양의 투각 장식을 들 수 있다. 화염보주는 승탑(僧塔)이나 사리장엄구 등 불교 공예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구슬의 둘레를 에워싼 불꽃을 형상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목조 업경은 화주를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업경의 받침은 연화가 가장 많고 연잎 형태의 받침도 많이 보인다.

업경에서 가장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대좌인데, 형태는 사자 모양이 가장 많고, 용이나 암반 형태, 혹은 단순한 기둥 형태도 있다(도 48)(도 49)(도 50)(도 51)(도 52)(도 53)(도 54)(도 55). 사자는 서 있는 모양이나 앉은 모양 등 다양한 모습을 보이며, 사자 그 자체가 대좌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다른 형태 속에 그림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용은 황룡과

청룡이 뒤틀어져 하나의 받침을 이루는 경우도 있고(도 56)(도 57) 전체적으로 원통형이 기둥을 위쪽만 세로로 잘라낸 듯한 특이한 형태도 있는데 이러한 것은 대부분 원형의 거울 앞에 약간 낮은 곳에 턱을 두어 무언가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도 58). 이러한 형태의 업경대 특징은 원형의 거울에 화염이 둘러싸인 것이 아니라 주형(舟形)의 마치 불상 광배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도 59). 다양한 대좌형태 중 코끼리가 마치 웅크리고 있는 자세로 쌍으로 합쳐져 하나의 대좌 형태도 볼 수가 있다(도 60).

사자 형태의 대좌는 쌍으로 된 것과 하나로 된 것이 있는데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은 대체로 황색과 청색이다.





도 50 조선후기, 나무, 전체높이87,
최대폭68, 석남사소장



도 51 조선후기, 나무, 전체높이88,
최대폭41.5, 청련사소장



도 52 조선후기, 나무, 전체높이77.5,
국립중앙박물관소장



도 53 조선후기, 나무, 전체높이98.2,
너비36.4, 국립중앙박물관소장



도 54 조선후기, 나무, 전체높이77.5,
너비57, 국립중앙박물관소장



도 55 조선후기, 나무, 전체높이50.5,
최대폭63.2, 봉은사소장



도 56 조선후기, 나무,청동, 전체높이90.6,
최대폭31.5, 흥국사소장



도 57 조선후기, 나무, 전체높이136,
최대폭60, 용문사성보박물관소장

	
<p>도 58 조선후기, 나무,청동, 전체높이96.5, 직지정보박물관소장</p>	<p>도 59 조선후기, 나무, 전체높이119, 월정사박물관소장</p>
	
<p>도 60 조선후기, 나무, 전체높이134, 최대폭56, 쌍계사소장</p>	

보통 업경대는 지장전(명부전⁵⁰·업경전)에 안치되며(도 61)(도 62), 한 쌍으로 불단의 지장보살 좌우에 각각 봉안되거나 하나인 경우는 지장보살의 왼쪽에 배치된 경우를 볼 수 있다.⁵¹⁾



(도 61) 성주사 지장전 업경대

(도 62) 표충사 명부전 업경대(1688)

불화에서의 업경대 장면은 염라대왕도에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일반적이지만 예외도 있다.⁵²⁾ 업경대 안에는 보통 긴 몽둥이를 들고 소를 때

50) 유명계의 심판관인 시왕(十王)을 봉안하고 있으므로 시왕전(十王殿)이라고도 하며, 지장 보살(地藏菩薩)을 주불(主佛)로 봉안하고 있으므로 지장전(地藏殿)이라고도 한다. 법당에는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좌우에 도명존자(道明尊者)와 무독귀왕(無毒鬼王)을 협시(脇侍)로 봉안하고 있다. 그리고 그 좌우에 명부시왕상을 안치하며, 시왕상 앞에는 시봉을 드는 동자상 10구를 안치한다. 이 밖에도 판관(判官) 2구, 녹사(錄事) 2구, 문입구에 장군(將軍) 2구 등 모두 29개의 존상(尊像)을 갖추게 된다. 『한국의 미』 13, -사원건축-, 중앙일보사, 1983. p. 176.

51) 창원성주사 대웅전(大雄殿) 오른쪽에 위치(位置)한 이 전각(殿閣)은 2006년(年)에 신축된 정면(正面) 5칸, 측면(側面) 3칸 규모의 다포계(多包系) 팔작(八作)지붕 건물(建物)로서 내부(內部)에는 지장보살과 시왕(十王)이 봉안되어 있다.

52) 신겸의 <시왕도초와 사자도초>는 총 12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진광대왕 도산지옥, 제2초강대왕, 제3송제대왕 제4오관대왕 검수지옥, 제5염라대왕 발설지옥, 제6변성대왕 독사지옥, 제7태산대왕 대애지옥, 제8평등대왕 거해지옥, 제9도시대왕 철상지옥, 제10오도전륜대왕 흑암지옥, 제11감재사자, 제12직부사자, 이 중에 제1진광대왕부터 제9도시대왕 까지 업경이 나타나 있으며, 현재 조선 후기 시왕도초와 사자도초는 여러점이 전하지만 신겸의 <시왕도초와 사자도초>처럼 일괄로 전하는 예는 아직은 발견하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의 시왕도초와 사자도초에는 출초자에 대한 명시가 거의 없지만 신겸의 <시왕도초와 사자도초>에는 출초자와 출초한 시기, 사용된 사찰 등이 상세히 묵서로 기록되어 있다. 첫 번째 내용은 “퇴운당 신겸이 1828년 5월일 경상좌도 의성 고운사 각부 (시왕도와 사자도)를 출초하였다. 두 번째는 ”이 초본으로 1829년 10월일에 경기도 북한산 중흥사 명부전 상단탱과 각부탱과 사자탱을 조성하였다. [此草己丑十月日京畿北漢重興寺冥府上壇與各部使者幀成造]는 내용이다. 이 기록은 弟二初江大王草와 <直府使者圖草>에만 추가로 적혀 있다. 묵서 내용대로라면 신겸의 <시왕도초와 사자도초>는 원래 고운사 명부전에 불화를 봉안하기 위해 출초되었고 그 뒤 중흥사의 명

려죽이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것은 생전에 가축을 도살한 사람의 죄가 업경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불화에 나타나는 업경대의 거울은 원형이 일반적이며 타원형도 있다. 원형의 거울은 연화 받침이 거울의 뒤쪽으로 돌아가는 형태로 보아 이것도 단순한 원형의 평면거울이 아니라 구슬 형태로 판단된다. 구슬 모양에는 화염이 등장하지 않고, 대좌는 사자 대좌보다는 단순한 형태인 기둥형이 많다. 이는 전체 화면 중 제5염라대왕도 하단에 작은 크기로 등장하는 업경대를 장식성이 많은 사자로 표현하는데 대한 한계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타원형의 거울은 테두리가 둘러지고, 타원형 안에 사각형이 거울이 다시 그려진 완전한 평면의 거울 형태를 나타낸다. 거울의 둘레에는 꽃잎 형태의 테두리가 둘러져서 장식성이 돋보이며, 거울의 내용은 구슬 형태와 같은 소를 죽이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구슬 형태와 타원형 형태의 거울은 시기적으로 선후가 나뉘는데, 구슬형태가 빠르고 타원형의 거울은 대부분이 19세기 이후의 것이다. 또 대좌의 형태도 불화에서는 앞선 시기의 1742년이 해인사 업경대와 1744년 직지사 업경대에서는 사자 형태를 보이고 그 이후는 대부분이 단순한 기둥 형태의 대좌인 점도 주목된다.

현재 남아 있는 목조 업경대의 경우도 사자대좌가 대체로 빠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업경대의 대좌는 한 쌍의 사자 대좌에서 출발하여 1기의 기둥형 대좌로 변천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 하나 목조 업경대와 불화 속 업경대의 차이점을 꼽아보자면, 목조 업경대에서 쌍으로도 나타나는 것이 불화 속에서는 예외 없이 모두 하나의 업경대로 표현된 점이다. 염라대왕 앞에 두 구의 업경대는 필요치 않았을 것이나 실제로 지장전이나 명부전에 설치된 목조 업경대는 업경대의 의미와 함께 불전을 장엄하는 방편으로 쌍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된다.

부전에 다시 사용되었다. 초본의 적힌 글의 내용으로 보아 이 목서는 1829년 중흥사 명부전 불사 이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용윤, 「퇴운신검의 十王圖草와 使者圖草 연구」, 『불교미술사학』 제16, 2013, pp. 170-173.

V. 맺음말

현존하는 몇몇의 업경대 작품 중 연대가 확실히 밝혀진 조선후기 업경대와 불화자료와의 비교를 통하여 업경대에 관해 살펴보았다. 업경대는 사람들의 행위(業)를 비추는 거울을 상징하며 업경대의 거울 속에 생전에 불살생계를 어기고 짐승을 죽이는 죄를 짓는 장면이 비치는 표현으로 이를 통해 인도에서도 오래전부터 선악을 분별하고 비추는 업경의 개념이 전해왔음을 알려준다. 불가의 엄격한 수계생활을 일깨우는 장엄구이자 권선징악의 상징물이라 할 수 있다. 앞서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열악한 우리나라 목조각품의 편년 설정에 있어서 기준작이 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년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전등사의 업경대와 그 외 청곡사, 동화사, 파계사 업경대 중요성은 절대년대를 지녔다는 사실과 그 상태가 양호하고 뛰어난 조각기법 등은 불교 목조각의 조형성을 말해 주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 글은 지금까지 현존하는 불교장엄·의식구인 실물 업경대 22점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와 함께 18세기부터 남아있는 지장시왕도 중 제 5 염라대왕 그림에 등장하는 업경대와 함께 비교하여 공통점 혹은 차이점을 정리한 결과 다음의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이러한 변화과정 고찰을 통해 지금까지 제작시기를 판단할 수 없었던 조선 후기 업경대의 제작시기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이 논문의 첫 번째 의미이다. 변화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17세기 업경대는 실물로만 남아있고, 불화에는 없다. 한 쌍의 사자대좌이며, 황색과 청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18세기 업경대 역시 실물의 경우 쌍으로 제작되었으며, 17세기와 큰 차이없이 전개되었다. 반면 18세기 불화의 업경대는 실물과 달라 쌍이 아닌 1기만 표현되어 있으며, 그 경우 황색 사자 만을 그려넣고 있다. 1기만 그려넣을 경우 청색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색이었던 황색을 선택하였던 것으로 생각한다. 이처럼 그림 속 업경대는 1기만 등장하는데, 죄를 비

추는 실질적인 업경대의 역할을 중시하였기 때문으로, 굳이 쌍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실물은 쌍으로 제작하였는데, 통상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그 좌우에 업경대를 배치한다. 이 때 보다 상위의 개념인 지장보살의 왼쪽에는 황색을, 오른쪽에는 청색의 사자대좌를 지닌 업경대를 배치한다. 이 경우 좌우 대칭이 강조되면서 지장보살의 좌우에 1기씩의 업경대가 필요하였던 것이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판단한다. 한편 실물로 1기만 둘 경우 사자가 아닌 황색과 청색의 용 한 쌍을 하나의 대좌로 구성하여 지장보살의 왼쪽에 봉안하기도 한다.

18세기 후반이 되면 그림 속 업경대에도 변화가 생기는데, 즉 황색사자가 사라지고 기둥형 대좌의 업경대가 등장한다. 흥미롭게도 실물 업경대 역시 그림 속 업경대와 마찬가지로 기둥형 업경대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이전의 사자대좌 업경대의 전통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제작된다.

19세기는 18세기 그림 속 업경대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기둥형 업경대가 실물로도 제작되기 시작한다. 이후 19세기의 업경대는 실물로도, 혹은 그림으로도 기둥형 업경대가 주류를 이룬다. 19세기 후반이 되면 수은 거울, 즉 양경(洋鏡)의 보편화와 함께 거울의 모습을 타원형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추정한다.

2. 실물 업경대와 그림 속 업경대의 비교 분석이다. 실물 업경대와 그림 속 업경대의 가장 큰 차이는 실물은 기본적으로 쌍으로 제작하였으며, 그림 속 업경대는 1기만 그려놓고 있다는 점이다. 실물 업경대의 경우 지장전 또는 명부전에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좌우에 각각 1기씩 봉안하는데, 왼쪽에는 보다 중요한 황색 사자대좌의 업경대를, 오른쪽에는 청색 사자대좌의 업경대를 배치한다. 반면 그림 속 업경대는 실질적인 업경의 역할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이며, 거울 혹은 구슬 안에 소를 도살하는 장면이 공통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는 당시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동물인 소를 죽이는 죄과가 가장 컸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실물 업경대는 실제로 ‘업경’이지만, 그림속 업경대의 경우는 ‘업경’ 즉 거울이라기 보다는 ‘화주’일 가능성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사료

- 『佛說預修十王生七經』
『楞嚴經』
『正法念處經』
『四分律行事抄資持記』
『地藏菩薩心因緣十王經』
『大唐西域記』
『大乘大集地藏十輪經』
『地藏菩薩本願經』
『占察善惡業報經』
『占察法會』
『三國遺事』

도록

-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한국의 사찰문화재』 -전라북도·제주도, 2003
—————, 『한국의 사찰문화재』 -충청남도·대전광역시, 2004
—————, 『한국의 사찰문화재』 -충청북도, 2005
—————, 『한국의 사찰문화재』 -전라남도·광주광역시, 2006
—————, 『한국의 사찰문화재』 -경상북도 I·대구광역시, 2007
—————, 『한국의 사찰문화재』 -경상북도 II, 2008
—————, 『한국의 사찰문화재』 -경상남도 I, 2009

- , 『한국의 사찰문화재』 -경상남도·부산·울산Ⅱ, 2010
- , 『한국의 사찰문화재』 -경상남도Ⅲ, 2011
- , 『한국의 사찰문화재』 -인천광역시·경기도, 2012
- , 『한국의 사찰문화재』 -서울특별시, 2013
- 『직지성보박물관의 유물』, 직지성보박물관, 2003
- 『한국불화』, 정보문화재연구원, 2002
- 『동아대학교 소장 불교미술』, 동아대학교박물관, 2012
-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한국의 사찰문화재』 독일 쾰른 동아시아 박물관소장 한국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 『팔공산동화사』, 통도사성보박물관, 동국대학교박물관, 2009
- 『삶, 그후』, 불교중앙박물관, 2010
- 『붓고 푸른 장엄의세계』, 불교중앙박물관, 2015

단행본

- 안귀숙·최선일, 『조선후기 불교장인 인명사전』, 공예와 전적, 양사재, 2009
- 박찬수, 『불교목공예』, 대원사, 1990
- 김정희, 『조선시대 지장시왕도 연구』, 일지사, 1996
- 김영주, 『조선시대 불화연구』, 지식산업사, 1986
- 홍윤식, 『한국불화의 연구』, 원광대학교출판국, 1980
- 유마리, 김승희, 『불교회화』, 솔출판사, 2004
- 이기선, 『지옥도』, 대원사, 1992
- 『한국의 박물관 3』, 한국박물관연구회, 문예마당, 2000
- 동국불교미술인회, 『사찰에서 만나는 불교미술』, 대한불교진흥원, 2005

『한국의 미』 13, -사원건축- 중앙일보사, 1983

『한국 사찰전서』, 동국대학교출판부, 1979

연구논문

윤열수, 「전등사소장 천계 칠년명 목각업경대」, 『동악미술사학』 3, 동
악미술사학회, 2002.

최선일, 「조선후기 조각승의 활동과 불상연구」, 홍익박사학위 청구논문,
2006,6.

홍윤식, 「조선사원전래의 불화내용과 그 성격 - 조사방법중심으로-」,
문화재10, 문화재관리국, 1976.

김정희, 「19세기 지장보살화의 연구」, 『불교미술』 12, 동국대학교박물
관, 1994.

안귀숙, 김정희·유마리공저, 「조선불화의 연구 2-지옥계불화」, 한국정신
문화연구원, 1993.

최응천, 「조선후반기 제1기(광해군-경종대) 불교목공예의 명문과 양식적
특성연구」, 『강좌미술사』 38, 한국미술사연구소, 2012.

김순아, 「불교법구 業鏡臺 고찰」, 『불교미술25』, 2014.

홍대한, 「마음을 비추는 거울」- 업경 『월간불광 359』, 불광출판사,
2005

이용윤, 「퇴운신검의 十王圖草와 使者圖草연구」, 『불교미술사학』 제
16, 불교문화재연구소, 2013

학위논문

김혜원, 「조선후기 시왕도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8.

우진웅, 「한국밀교경전의 관화본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1.

노현석, 「불교의 지옥 고찰- 『정법념처경』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5.

정경희, 「조선후기 불화에 나타난 지옥표현에 관한 고찰」-시왕도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2.

표 목록

- (표 1) 조선후기 목조업경대의 대좌 형식 분류
- (표 2) 조선후기 시왕도의 대좌 형식 분류
- (그림 1) 조선후기 목조업경대의 소재지 현황
- (그림 2) 조선후기 시왕도의 업경대 소재지 현황

도판 목록

- (도 1) 1246년 해인사소장 『예수시왕생칠경』 변상관화(제5엽라대왕도)
- (도 2) 1627년 전등사소장 업경대(황색사자)앞
- (도 3) 1627년 전등사소장 업경대(황색사자)뒤
- (도 4) 1627년 전등사소장 (청색사자)
- (도 5) 1627년 전등사소장 (청색사자)얼굴
- (도 6) 1627년 전등사소장 황색사자대좌 받침 명문
- (도 7) 1688년 전등사소장 청색사자대좌 받침 명문
- (도 8) 1688년 표충사소장 업경대
- (도 9) 1688년 표충사소장 업경대 명부전 봉안
- (도 10) 1693년 청곡사소장 업경대
- (도 11) 1693년 청곡사소장 동으로 된 거울 명문(황색)
- (도 12) 1728년 청곡사소장 동으로 된 거울 명문(청색)
- (도 13) 1728년 동화사성보박물관소장 업경대
- (도 14) 1728년 동화사성보박물관소장 화염문 명문

- (도 15) 1742년 해인사소장 (명부전시왕도)
- (도 16) 1742년 해인사소장 업경대
- (도 17) 1744년 직지사소장 (명부전시왕도)
- (도 18) 1744년 직지사소장 업경대
- (도 19) 1744년 옥천사소장 (명부전시왕도)
- (도 20) 1744년 옥천사소장 업경대
- (도 21) 1766년 대원사소장 (명부전시왕도)
- (도 22) 1766년 대원사소장 업경대
- (도 23) 1771년 수다사소장 (명부전시왕도)
- (도 24) 1771년 수다사소장 업경대
- (도 25) 1792년 흥국사소장 (명부전시왕도)
- (도 26) 1792년 흥국사소장 업경대
- (도 27) 1798년 통도사소장 (명부전시왕도)
- (도 28) 1798년 통도사소장 업경대
- (도 29) 1799년 기림사소장 (명부전시왕도)
- (도 30) 1799년 기림사소장 업경대
- (도 31) 18세기 온양민속박물관소장 (명부전시왕도)
- (도 32) 18세기 온양민속박물관소장 업경대
- (도 33) 1862년 과제사소장 업경대
- (도 34) 1855년 화방사소장 (명부전시왕도)
- (도 35) 1855년 화방사소장 업경대
- (도 36) 1872년 보광사소장 (명부전시왕도)
- (도 37) 1872년 보광사소장 업경대
- (도 38) 1878년 화계사소장 (명부전시왕도)
- (도 39) 1878년 화계사소장 업경대
- (도 40) 1885년 흥천사소장 (명부전시왕도)
- (도 41) 1885년 흥천사소장 업경대

- (도 42) 1892년 청곡사소장 (명부전시왕도)
- (도 43) 1892년 청곡사소장 업경대
- (도 44) 1898년 봉국사소장 (명부전시왕도)
- (도 45) 1898년 봉국사소장 업경대
- (도 46) 1923년 안양암소장 (명부전시왕도)
- (도 47) 1923년 안양암 업경대
- (도 48) 조선후기 해인사성보박물관소장 업경대
- (도 49) 조선후기 은혜사소장 업경대
- (도 50) 조선후기 석남사소장 업경대
- (도 51) 조선후기 청련사소장 업경대
- (도 52) 조선후기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업경대
- (도 53) 조선후기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업경대
- (도 54) 조선후기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업경대
- (도 55) 조선후기 봉은사소장 업경대
- (도 56) 조선후기 흥국사소장 업경대
- (도 57) 조선후기 용문사성보박물관소장 업경대
- (도 58) 조선후기 직지성보박물관소장 업경대
- (도 59) 조선후기 월정사박물관소장 업경대
- (도 60) 조선후기 쌍계사소장 업경대
- (도 61) 성주사 지장전 봉안된 업경대
- (도 62) 표충사 명부전 봉안된 업경대

Study of Karma Mirror Stand in Late Joseon dynasty

oh ji min

Department of Cultural Assets

The Graduate School

Gyeongj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Yim, Young ae

(Abstract)

Eobkyoungdae, or karma mirror stand is also called Eobkyoung or Eopkyoungryun. In Buddhism, karma mirror, which belongs to Yeomradeawang or Hades, reflects one's sins. When one goes to hell after death, Hades makes one confess the sins committed during one's life. All of the sins are reflected on the mirror. For this reason, karma mirror stand is located in Siwangjeon, the Ten Kings Hall and Myeongbujeon, the hall of the judgement of the dead, in order to watch sins.

Karma mirror also appears in Buddhist scripture, and so do the names of the Ten Kings of hell and the judgment ceremony in hell. All of the paintings of Hades or Yeomradeawangdo have their Karma mirror stands that

depict scenes of killing cows with a long club, which reflects the sin of slaughter in one's life.

Most karma mirror stands are made with wood, A pair of wooden karma mirror stands of Jeondengsa temple created in 1627, a piece of wooden karma mirror stand of Pyochoongsa temple made in 1688, and a pair of wooden karma mirror stands of Cheongkoksa temple made in 1693 have their absolute years. Those works are mod[?] of karma mirrors. A piece of karma mirrors of Donghwasa temple and a pair of karma mirrors of Pakyesa temple were made in 1728 and 1662 respectively.

Nine Karma mirror stands in the 18th century are shown in Buddhist paintings of the Ten Kings, one of which is Myeongbujesiwangdo, the painting of the Ten Kings in the hall of the judgement of Haeinsa temple in 1742. There are also seven works created in the 19 century, including the painting of the Ten Kings in the hall of the judgement in 1855, It is housed in Hwabangsa temple now.

Karma mirror stands in late of Joseon Dynasty are made with wood and they are divided into two; one as the real thing and the other in Buddhist paintings. Here are the characteristics about Karma mirror stands.

First, the 17th century karma mirror stands exist as a real thing but they are not shown in Buddhist paintings. They consist of a pair of lions and the lions are yellow and blue respectively. The 18th century karma mirror stands also consists of two lions and they are similar to ones in the 17 century. On the other hand, the 18 century's karma mirror stands in Buddhist paintings are different from real things. They have only one in yellow, not a pair of lions. It seems that because yellow was more important, yellow lions were chosen. In the late of 18 century karma mirror stands in Buddhist paintings have some changes. Yellow lions are not shown in the mirrors. Instead, they have pillar shaped pedestals Interestingly, real karma mirror stands have pillar-shaped pedestals as well. However, lion pedestal tradition still appears in karma mirror stands. Real karma mirror stands with pillar-shaped pedestals which are shown the 18th century's paintings were created in the 19th century. After that, real karma mirrors as well as the mirror stands from paintings in the 19th century usually feature pillar-shaped pedestals. With generalization of Yangkyeong, mercury mirror of the late 19 century, Yangkyug is oval.

The second feature of karma mirror stands can be brought by

comparative analysis of real karma mirror stands and ones in Buddhist paintings.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them is that the real works are in pairs but ones in paintings are shown in a piece. Real karma mirror stands are enshrined in Jijangjeon, the hall of Ksitigarbha Bodhisatrva and Myeongbujeonl, the hall of the judgement of the dead; one on the left side of Ksitigarbha Bodhisatrva; the other is on the right side of it. Yellow lion pedestal, more important than blue lion is located on th left side and blue lion on the right side. Karma mirror or the ball show the scene of killing cows in common. It means that the slaughtering of cows were considered greatest sin because a cow were a significant animal in agrarian society at that time.

Third, real karma mirror stand is a mirror, but in the case of karma mirror in paintings, it is possible that the mirror is Hwaju, the ball that causes fire.

It is considered that karma mirror makes one see the sins before one's eyes by affecting brilliance of true inner nature where ego, human nature exists deeply. By brightening up one's mind with light holly spirit, karma mirror makes one reflect on one's life before death and repent of one's sins.

Keyword: karma mirror stand (Eobkyoungdae), pedestal, wooden work, painting of the Ten Kings (Siwangdo), painting of Hades (Yeomradeawangdo), hall of Ksitigarbha BodhisatrvaJijangjeon, (Jijangjeon), hall of the judgement of the dead (Myeongbujeonl)